



SEJONG CENTER MAGAZINE — FEBRUARY — MARCH 2025 — N° 16 — SEJONG SEASON 25

SEJONG CENTER MAGAZINE — FEBRUARY — MARCH 2025 — N° 16 — SEJONG SEASON 25



CONTENTS

SEJONG SEASON 25

02
calendar
장르별 한눈에 보는 2025 시즌

03 •
object n repertory
제작극장의 꽃, 프로듀서에게 듣는 시즌 라인업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 여정,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P.04
한국춤의 본질, 오늘의 무대로, 서울시무용단 → P.07
우리 인생의 드라마, 서울시극단 → P.10
장르 경계를 넘는 유연한 움직임, 서울시발레단 → P.13
올해 또한 기대해도 좋은, 서울시오페라단 → P.17
감상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 서울시뮤지컬단 → P.18
다채로운 노래와 계절의 향연, 서울시합창단 → P.18
마법 같은 공연의 순간,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 → P.19

20
season for seasons
계절별로 흠어보는 2025 시즌

INTERMISSION

2025년을 맞이하며 예술 현장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30 •
80년의 역사, 80살의 기억

31
국악 생태계의 세로 분열

34
생활 속으로 들어온 공예문화

ARCHIVE

38
choreographer
오하드 나하린,
혁신적 안무가의 귀환

44
conversation
코미디, 너무 괜찮다
연출가 임도완

50 •
commemoration
제도의 상징, 양식의 탄생, 예술가의 역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60주년

54 •
the corner
극장, 현대미술을 품다

60
with patron
함께 만드는 화음으로 이어지는 예술의 내일
한재동 세종문화회관 후원회 부회장

62
in the library
공연 포스터 다시 보기,
먼지 톡톡 털고 만난 얼굴들

2025 시즌 세종문화회관은 총 29편 174회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예술을 선도하는 제작극장'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동시대 공연예술을 이끄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국악관현악·무용·합창·뮤지컬·연극·오페라 등 장르별 내공을 갖춘 예술단 중심 콘텐츠는 세종문화회관의 도약에 탄력 넘치는 구름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 60주년에 기해 국악관현악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이끄는 김희선 교수의 글을 띄운다. "양식, 연행, 제도로서 국악관현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성장한 국악관현악 60년의 역사는 관객의 역사이며, 관객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고민의 역사라는 점이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정신적으로 스킨십하는 기회가 적을수록 스크린 너머 타인의 죽음은 점점 더 많고, 쉽고, 가벼워진다. 아마도 함파테 바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5년 우리의 눈앞에는 활활 불타며 사라지는 천만 개의 도서관이 있다.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극장은 열린 공간이다. 예술을 환대하고 사람과 매개하는 곳.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세종문화회관은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예술과의 우연한 만남을 주선한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노들섬에 새롭게 들어선 현대미술 작품 11점을 소개한다.

발행인 안호상 편집/기획 총괄 김화영 김석경 편집위원 박병성 정성갑 최여정 한정호
아트 디렉터 손민지 편집장 김태희 사진 세종문화회관 Studio Kenn Studio79 제작 designikki 인쇄 으뜸프로세스(주) ISSN 2951-1615
발행처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대로 175 T. 02-399-1000 www.sejongpac.or.kr

'세종문화'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세종문화회관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각 원고는 필자 혹은 인터뷰이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숲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종이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녹색 제품을 사용합니다.

데카당스 Decadance
코믹 Comique
파우스트 Faust
합창, 피아니디 Voices in Bloom
창단 60주년 해리포트 SMTOWN
60th Anniversary Concert
스피드 Speed
동방이래특급
Post-Orientalist Express
워킹 매드 & Bliss
Walking Mad & Bliss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인 콘서트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TM in Concert
더 피스트 그레이쇼
The First Great Show
유령 Ghost
가극시대 The Time and Stages for
Art Songs
Re-프로젝트 Reframing Project
셀나의 시리즈-소리심
Chamber Music Series
일류 One Dance
다불발 유죄용>한스 판 마넨
Double Bill by Ryu Hoi-wong &
Hans van Manen
수상음악 프로젝트-웨이브
Wave : Water Music Project
여름 가족 음악회
Summer Family Concert
통스소리 Toongso Whistles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Part I
인 콘서트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TM Part I in
Concert
낙엽 위에 흐르는 멜로디
Melody Over The Leaves
다불발 한스 판 마넨-하문순
Double Bill by Hans van Manen
& Hue Young-soon
미메시스 Mimesis
트랩 Trap
아이디 Aida
믹스드 오케스트라-넥스트 레벨
Mixed Orchestra-Next Level
행렬 메시아
Messiah by G. F. Handel
오페라 길라 Opera Gala
정명준 > KBS교향악단 베를린 9
Chung Myung-whun > KBS
Symphony, Beethoven 9

세종문화회관

국악 KOREAN TRADITIONAL MUSIC 04/18 창단 60주년 헤리티지 SMTOWN 60th Anniversary Concert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06/26 Re-프로젝트 Reframing Project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07/25 실내악시리즈-소리섬 Chamber Music Series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08/29 수상음악 프로젝트-웨이브 Wave : Water Music Project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11/21 믹스드 오케스트라-넥스트 레벨 Mixed Orchestra - Next Level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용 DANCE 04/24-04/27 스피드 Speed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08/21-08/24 일무 One Dance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1/06-11/09 미메시스 Mimesis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뮤지컬 MUSICAL 05/29-06/15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The First Great Show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합창 CHORUS 04/16-04/17 합창, 피어나다Voices in Bloom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06/13-06/14 가곡시대 The Time and Stage for Art Songs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08/29 여름 가족 음악회 Summer Family Concert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0/30-10/31 낙엽 위에 흐르는 멜로디 Melody Over The Leaves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12/04 헨델, 메시아 Messiah by G. F. Handel 롯데콘서트홀
오페라 OPERA 04/10-04/13 파우스트 Faust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1/13-11/16 아이다Aida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2/13 오페라갈라Opera Gala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극 THEATRE 03/28-04/20 코믹 Comique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05/30-06/22 유령 Ghost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09/05-09/28 통소소리 Toongso Whistles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11/07-11/30 트랩 Trap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발레 BALLET 03/14-03/23 데카당스Decadance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05/09-05/18 워킹 매드&블리스 Walking Mad & Bliss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08/22-08/27 더블 빌 유희웅×한스 판 마넨 Double Bill by Ryu Hoi-woong & Hans van Mane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10/30-11/02 더블 빌 한스 판 마넨×허용순 Double Bill by Hans van Manen & Hue Young-soo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기획공연/공동주최 OTHERS 05/02-05/04 동방미래특급 Post-Orientalist Express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05/16-05/18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인 콘서트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in Concert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0/24-10/26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Part I 인 콘서트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ollows™ Part I in Concert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2/30 정명훈×KBS교향악단 베토벤 9 Chung Myung-whun × KBS Symphony, Beethoven 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작극장의 꽃, 프로듀서에게 듣는 시즌 라인업

‘제작극장’ 선언 4년 차를 맞이한 2025년, 기관과 예술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세종문화회관의 노력이 결과를 보여줄 전망이다. ‘새로운 예술을 선도하는 제작극장’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동시대 공연 예술을 이끄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국악관현악·무용·합창·뮤지컬·연극·오페라 등 장르별 내공을 갖춘 예술단을 중심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콘텐츠 확보에 꾸준히 힘써온 내력이 있다.

2025 시즌 세종문화회관은 총 29편 174회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예술단의 작품은 25편 162회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예술단 중심기조를 강조했다. 공연장 공간을 토대로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예술단의 훌륭한 레퍼토리를 연중 꾸준히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 2022년 초연해 올해까지 매년 꾸준히 대극장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서울시무용단〈일무〉나 S씨어터에서 ‘오펜레이터’라는 새로운 장르로 초연해 올해 대극장 버전으로 발전시킨 서울시오페라단〈파우스트〉,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 힘입어 재공연을 결정한 서울시극단〈트랩〉과〈통소소리〉, 지난해 서로 다른 시기에 공연된 초연작 두 편을 모아 새로운 더블 빌로 구성한 서울시발레단의 공연이 그라하다. 한편, 2022년 초연 이래 많은 관객에게 꾸준한 사랑받는 서울시뮤지컬단〈다시, 봄〉은 지난해 LG아트센터 서울에 이어 올해는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자 서울을 떠나 전국 곳곳으로 향한다. 이처럼 이번 시즌에는 세종문화회관 각 공연장에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서울시예술단의 작품 9편을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를 통해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예술단만의 색을 만끽할 수 있다면, 현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신작을 만나는 것 또한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24년 창단하며 ‘컨템퍼러리 발레’라는 화두를 전면에 제시한 서울시발레단은 국내외 안무가들과 밀착 협력해 7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각 예술단이 우리 시대와 긴밀하게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예술적 성취에 더 많은 관객이 함께해주시기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 여정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글. 이현주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2팀
프로듀서

2025년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다. 창단 6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해 취임한 제17대 이승현 단장과 함께 '헤리티지[heritage]'를 주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 이번 시즌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국악관현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로써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며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지난 6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역사를 기념하는 창단 60주년 <헤리티지>(04/18)는 국악관현악의 과거·현재·미래를 포괄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 뮤지컬 배우의 협연,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음악감독

으로 활동하는 작곡가의 신작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이 돋보이는 <헤리티지> 무대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잘 드러낼 것이다.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믹스드 오케스트라는 <넥스트 레벨>(11/21)을 주제로 두 번째 장을 시작한다. 배합관현악의 완성형 사운드를 추구하며, 스타 연주자와의 협연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다채로운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한다.

국악관현악을 현대음악으로 탐구하는 <Re-프로젝트>(06/26)에는 지휘자 최수열이 함께하며, 작곡가 이하느리의 위촉 초연작으로 장단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주제로 창작곡을 선보이는 수상 음악 프로젝트 <웨이브>(08/29)는 장

르 경계를 넘나드는 참신한 음악으로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예술성 높은 신작으로 국악관현악의 폭넓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또한, 두 악기 이상의 소리가 만나 호흡을 맞추는 실내악 시리즈 <소리섬>(07/25)에서는 국악 앙상블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2025 시즌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인다.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이 국악관현악을 색다르게 마주하는 특별하고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장르의 한계를 허무는 창작 프로젝트로 더 넓고 깊은 시각에서 국악관현악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MASTERPIECES 우리 것, 우리가 걸어갈 길

창작국악사를 관통한 명인 황병기의 시작은 가야금이었다. 경기중학교 3학년 시절 피란지 부산에서 가야금을 시작한 그는 악기에서 '여기 우리 것이 있다, 너 지금 무엇을 방황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1962년 서정주의 시에 전통 가곡 어법에 맞는 곡을 붙인 창작곡 '국화 옆에서'를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가야금 독주곡 ' 숲'을 내놓는 등 창작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¹⁹⁷⁴, '미궁'¹⁹⁷⁵ 등 음악은 오늘날 우리 국악사를 기록하는 번곡점이 됐다.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 60주년 <헤리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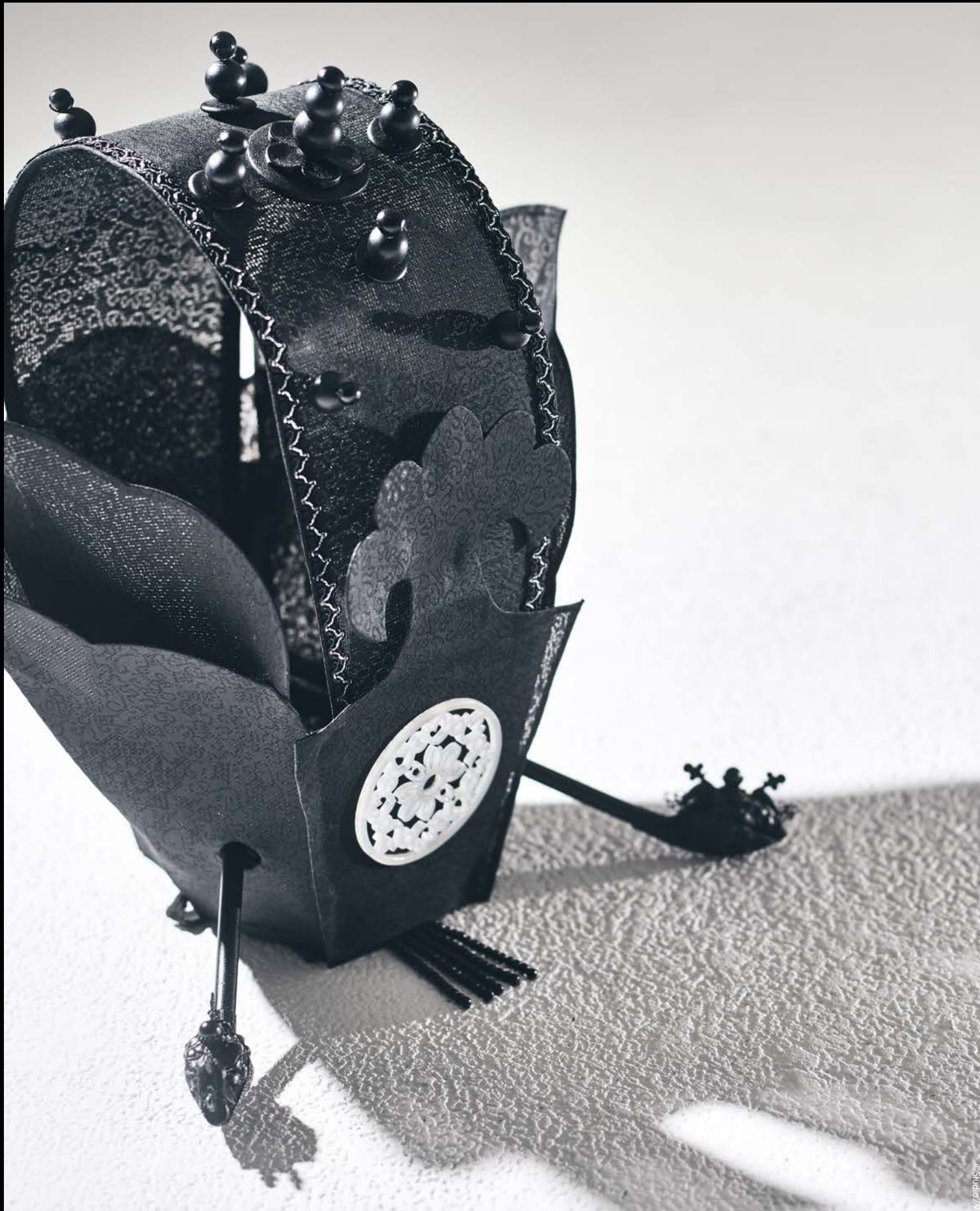
LIKE A FLOWER

내내 어여쁘소서

두꺼운 종이로 육각형 틀을 만들고 마치 꽃잎처럼 겹겹이 덧붙여 모양을 만든 뒤 비녀와 딸잠을 살포시 꽃은 머리 장식.

화관은 조선 시대 왕실과 반가 여성이 예복을 입을 때 갖추거나 궁중 정재에서 여령이 착용하던 관모다. 이름처럼 꽃이나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관모를 일컫는데, 조화를 꽃거나 그림을 그려 꾸미고, 보석을 얹어 장식하기도 했다. 근대에 이르러 일상에서 그 쓰임을 잃은 화관은 이제 무용수의 전유물일지니.

— 서울시무용단 〈일무〉



한국춤의 본질, 오늘의 무대로 서울시무용단

글 김민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1팀
프로듀서

서울시무용단은 2025 시즌 〈스피드〉, 〈일무〉, 〈미메시스〉 총 세 작품을 선보인다. 담당 프로듀서로서 각각의 작품을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스피드〉(04/24-04/27)는 윤혜정 단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춤의 기본이 되는 장단을 만드는 '장구'가 핵심 키워드다. 장구는 한국음악에서 리듬과 속도를 주도하는 악기로, 한국춤과 가장 밀접하다. 작품에서 장구는 다채로운 리듬이 엮어내는 속도 변화에 따라 무용수의 에너지를 정중동으로 끌어낸다. 또한 장구의 공명통인 몸통 부위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무대에 표현될 것이며, 속도는 시간으로 시간은 다시 우주의 원리로 확장된다. 모래시계 모양 세트와 연결되는 비주얼디렉터 이석의 LED 영상은 초현실적인 무대 연출을 보여준다. 또한 황민왕과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의 협업으로 장구 장단에 입혀진 전자음악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낼 것이다.

〈일무〉(08/21-08/24)는 서울시무용단의 최우수 레퍼토리 작품으로, 이미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이다. 2022년 세종문화회관 초연 후 재연·삼연됐고, 2023년 뉴욕 링컨센터에서 전회 전석 매진의 신화를 보여준 K콘텐츠 대표작. 〈일무〉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 가운데 의식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안무가 정혜진과 크레이티브 디렉터 정구호의 특별한 만남으로 화제가 됐으며,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미장센과 역동적인 칼군무가 압도적이다. 여기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궁중음악과 형형색색의 색감, 곡선의 미학을 살린 한복 의상 또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미메시스〉(11/06-11/09)는 전통무용으로 통칭하는 교방무·궁중무·민속무를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무대화한 작품으로 전통의 진화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 재현하는 것을 참된 예술의 본질, 즉 '미메시스Mimesis'라고 했다. 전통춤의 끊임없는 본질 찾기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1세기의 미메시스를 청하고 있다. 서울시무용단은 하반기에 공연할 〈미메시스〉를 통해 전통춤을 재정립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통춤 이미지에 담아온 유적으로 표현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자 한다. 특히 TV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이름을 알린 기무간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그가 〈미메시스〉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SPZED UP

봄을 알리는 춤의 소리

이어령은 ‘우리 문화 박물관’²⁰⁰⁷에서 “음양오행의 원리로 풀이하자면 투명한 장구 소리는 봄의 소리”이고, “가죽이라는 유기물 구성 요소가 내는 소리를 방위로 나타내자면 장구는 해가 뜨는 동쪽”이라고 했다. 장구를 비롯한 사물악기가 모여 만드는 소리는 “온몸으로 듣는 한국의 우주론”이라고도 덧붙였다.

모래시계 모양의 몸통 양쪽에 면을 만들어 손으로, 때로는 채로 쳐서 연주하는 장구는 악기로서만 아니라 우리 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장단을 연주하는 악기의 역할을 넘어서 동작을 표현하는 춤 자체로 승화하기도 했으니.

→ 서울시무용단 〈스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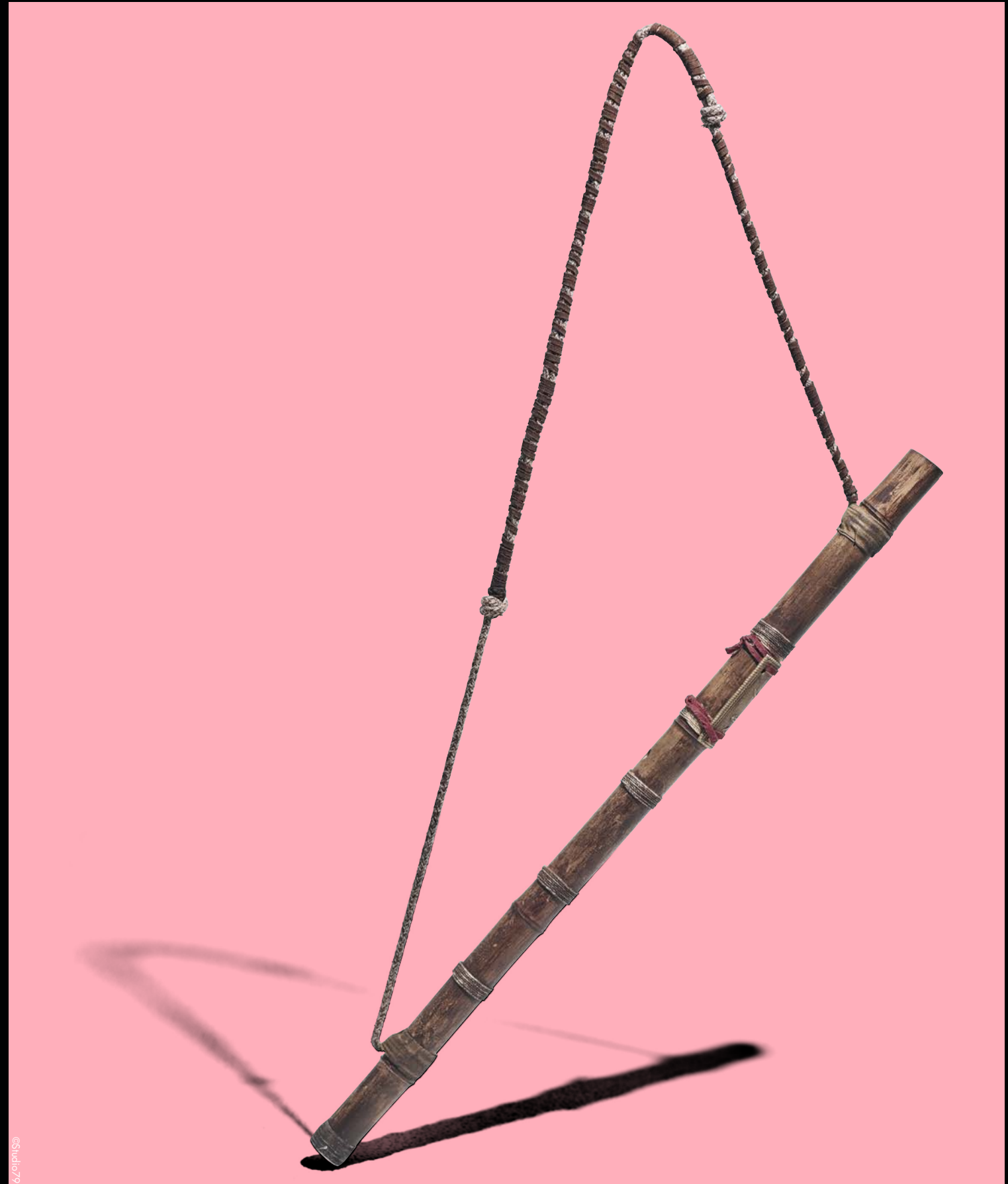
©Studio79

WIND, WIND, WIND

바람이 돌아나갈 때

고구려의 드높은 기상과 대륙을 호령하는 기백을 노래하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서민의 한을 담고 있는 소리. 척박한 환경인 함경도 지방에서, 특히나 북청사자놀음과 더불어 널리 연주된 통소는 청아한 음색의 대금이나 맑고 깨끗한 소리의 피리와 달리, ‘위아래’¹가 통하는 관악기²라는 의미처럼 거칠고 장쾌한 바람 소리가 특징이다. 변방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지으며 살던 이들의 애환을 담은 민요 ‘애원성’의 통소 소리는 슬픔과 이를 견뎌내고자 하는 흥겨움이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다. 통소를 등에 메고 떠나는 저 젊은이를 따라가보자.

→ 서울시극단 〈통소소리〉



©Studio79

우리 인생의 드라마 서울시극단

글. 박지한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1팀
프로듀서

서울시극단은 올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
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준비했다.
〈코믹〉(03/28-04/20)은 독일의 유명
극작가 카를 발렌틴의 단편을 새롭게 재
창작한 작품이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솜품 콘텐츠를 보듯 지루하지 않
게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전국
팔도의 사투리와 난센스 상황이 웃음을
선사한다. 임도완 연출이 준비한 미장
센과 재치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 상
국한 봄날 즐거운 공연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유령〉(05/30-06/22)은 이 시대의 이
야기꾼이자 서울시극단장 고선웅의 신
작이다.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가 없
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휴대전
화도, 신용카드도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삶은 어떨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
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지만 증명할 수

없어 유령처럼 떠도는 그들의 이야기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특별하면서도 흡
인력 있는 연극을 찾는다면 〈유령〉을 추
천한다.
〈통소소리〉(09/05-09/28)는 지난해
초연 당시 입소문을 타고 뜨거운 반응을
얻은 작품. 2024년 한국연극평론가협
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선정되며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작품은 조선 시대
모진 세월을 겪어낸 한 가족의 이야기로
한국·일본·중국·베트남을 넘나드는
대서사시를 그려낸다. 출연진 20명과
국악 라이브 밴드가 다채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
미있게 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
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조선 시대
소설 '최척전'을 원작으로 한다.
〈트랩〉(11/07-11/30) 역시 2024년 아
주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이다. 우연한
사고로 교외의 어느 집을 찾게 된 주인
공 트랩스에게 멋진 저녁 식사와 법정
게임이 제안된다. 과연 트랩스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무대는 법정을
떠오르게 하는 삼면 객석 구조로 설치되
며, 실제 음식이 서빙된다. 이런 신선한
상황에 관객들은 낯선 즐거움을 느끼며
배우들의 치열한 연기 공방과 마지막 반
전에 감탄할 것이다. 스릴러·서스펜스·
블랙코미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흥
미롭게 볼 수 있는 연극이다.
각각의 고유한 매력을 가진 서울시극
단의 네 작품을 통해 우리 인생의 드라
마가 더욱 풍성해기를 바라며, 행복한
2025년 되십시오.



ENJOY YOUR MEAL

마지막 만찬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요리와 값비싼 와인이 차려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생전 모르는 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주인공은 훌륭한 대접에 눈이 휘둥그레. 화려한 만찬에 가려진, 이들의 음모는 무엇일까.

—— 서울시극단 〈트랩〉

INTERVAL

기댈 수 있는 자유

서사에 의한 필요가 아니라면 무대에 등장한 후로는 앓을 수 없는 발레의 운명 때문일까? 모던발레 시기의 많은 작품에 오브제로써, 혹은 기능적인 용도로써 의자가 등장하곤 한다.

무대 위에 놓인 의자는 그 자체로 장식이 돼 질서 혹은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오브제에 신체 일부분을 의지한 무용수는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무용수의 유동적인 몸과 안정적인 오브제가 엉키면 춤에 변주 혹은 휴지가 생겨나고, 그 간격을 조정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 서울시발레단 <데카당스>



장르 경계를 넘는 유연한 움직임 서울시발레단

글. 지혜진
세종문화회관
발레제작팀

‘컨템퍼러리 발레’라는 화두를 제시한 창단 원년을 지나 2025년, 서울시발레단은 한층 더 넓어진 시선으로 ‘새로운 발레’ 작품을 선보인다.

시즌 개막작이자 서울시발레단 첫 작품은 혁신적인 안무의 아이콘, 오하드 나하린의 <데카당스Decadance>(03/14-03/23)다. 오하드 나하린의 대표작을 모은 콜라주 형식의 공연으로, 서울시발레단만의 버전으로 7편을 새롭게 엮어 무대를 선보인다. 그만의 움직임 언어인 ‘가가’를 통한 독창적인 안무 세계를 경험할 기회이자, 서울시발레단의 새로운 시즌 무용수들의 탄탄한 앙상블과 개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어 5월에는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안무가상을 수상한 요한 잉어의 <워킹 매드Walking Mad>와 <블리스Bliss>(05/09-05/18) 두 작품을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인다. 라벨 ‘볼레로’와 키스 재럿 ‘퀵 콘서트’ 같은 상징적인 음악 위에 펼쳐낸 그의 안무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탐구하는 과정의 기쁨과 우울, 유머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8월에는 유화웅의 <노 모어No More>와 한스 판 마넨의 <파이브 탱고스5 Tango’s>(08/22-08/27)를 더블 빌로 선보인다. 지난 시즌 초연한 안무가 유화웅의 작품은 새로운 에너지를 더해 서울시발레단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무력한 오늘을 넘어 내일로 내달리는 무용수들에게서 장르를 넘어선 드라마를 느낄 수 있을 것.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 <파이브 탱고스>는 그가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는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에 섬세하면 서도 강렬하게 발레 움직임을 조화시킨 작품이다. 안무가 특유의 정교함과 리듬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발레단 2025 시즌을 마무리하는 공연은 한스 판 마넨의 <캄머발레Kammerballett>와 허용순의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Under The Trees’ Voices>(10/30-11/02) 더블 빌이다. 한스 판 마넨 스타일의 정수라고도 칭하는 <캄머

발레>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간결한 피아노 선율과 그 위를 달는 무용수들의 단정하고도 단단한 걸음만으로 이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허용순의 작품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겸 지휘자 에치오 보소Ezio Bosso의 동명 교향곡2017을 세심하게 활용한 작품으로, 초연 당시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음악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평을 받았다. 발레에서 음악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발을 디디는 토대가 되는데, 두 작품을 통해 관객은 발레를 감상하는 또 하나의 감각을 새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즌 무용수 18명과 함께 빈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강효정, 영국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Lead principal 이상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최영규가 서울시발레단 객원 수석으로 합류한다. 갈라 공연이 아닌 한 편의 작품으로 세 무용수와 만나는 귀한 무대가 될 것이다.

2025 시즌은 세계적인 안무가의 대표작과 국내 안무가의 다양한 시도가 어우러지는 한 해다. 정의나 설명보다도 직접 감각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감상이 될 것이다. 장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서울시발레단의 시즌 라인업을 통해 관객 각자의 감각으로 ‘새로운 발레’를 발견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Studio79

PASSIONATE

사랑, 겹겹이 붉은

〈돈키호테〉의 키트리, 〈카멜리아의 여인〉속 마르그리트 고티에, 〈카르멘〉과 〈파키타〉의 타이틀롤... 이들 발레 주인공의 공통점은 빠알간 꽃장식을 머리에 달고 등장한다는 것. 주로 스페인어권의 캐릭터이며, 팜파탈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여성 무용수에게 꽃장식은 그 상징인 '로맨스'와 '사랑'의 감흥을 부여한다. 겹겹의 꽃잎이 단연 '꽃들의 여왕' 같은 이미지를 자아내며, 플라멩코나 탱고 춤을 추는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오브제다.

— 서울시발레단 (파이크 탱고스)

SHIMMERING

거울 속의 나, 너, 세계

거울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 이오

거울속에도 귀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 가 있소

거울속의 나는 왼손잡이오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 나는 거울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속의 나를 만나 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 마는 거울속에는 늘 거울속의 내가 있소

잠은 모르지만 외로운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속의 나는 참나와는 반대요 마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펍섭섭하오

이상 '거울' 1936

— 안은미 컴퍼니 〈동방미래특급〉

©Studio79

VICTORY

사랑과 전쟁

평화를 상징하는 월계수 가지와 잎, 혹은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월계관의 주인공이 경기 혹은 전투의 승리자였다는 점에서 종종 아이러니를 느끼지만, 월계관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계관시인'이라는 칭호만 해도 그렇다. 개선행진곡으로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쟁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으레 싹트고마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

—— 서울시오페라단 <아이다>



©Studio79

올해 또한 기대해도 좋은 서울시 오페라단

글. 류성광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2팀
프로듀서

이번 시즌 서울시오페라단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구노 <파우스트>, 베르디 <아이다>, 그리고 <오페라 갈라>를 선보인다. 박해진 단장 취임 이후 세계적인 성악가를 국내 무대에 소개하며 오페라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온 바 있다. 이번 시즌에도 사무엘 윤·임세경·황수미·김기훈 등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이 줄지어 출연한다. 첫 번째 작품, <파우스트>(04/10-04/13)는 2022년 SYNC NEXT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선보인 작품을 대극장 무대로 발전시킨 레퍼토리 공연이다. 지난 무대에서 파격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연극의 현장성을 강조한 무대로 호평을 받은 '오펜레이'play'(오페라+연극)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보다 웅장하고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대극장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 특히, 괴테의 원작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화·드라마·연극 등을 통해 일생을 연기에 몰두해온 정동환배우가 노년의 파우스트로 등장해 인간이 지닌 욕망, 회한, 고통 등 복합적인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악마와 계약해 젊음을 얻은 파우스트 역으로는 독일 브레멘 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약하며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너 김효종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린데만 영 아티스트'에 발탁된 테너 박승주가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두 번째 작품, <아이다>(11/13-11/16)는 '오페라의 황제'라 불리는 베르디가 남긴 걸작으로, 오페라뿐만 아니라 뮤지컬로도 널리 사랑받는 명작이다.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공주 암네리스 사이에서 펼쳐지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프로덕션에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웅장한 무대디자인과 강렬한 색감의 의상디자인이 더해져 역대급 화려한 오페라 무대를 선보일 예정. 캐스팅 역시 곧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 서울시오페라단의 이번 시즌 마지막 작품, 세종문화회관의 연말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은 <오페라 갈라>(12/13)는 세계적인 스타 성악가들의 아리아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공연이다. 매년 관객에게 친숙한 사회자를 무대에 등장시켜 친절한 해설을 통해 오페라 입문자도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도 특별한 사회자의 해설이 함께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관객이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힐링'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상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 서울시 뮤지컬단

글 박형미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1팀 프로듀서

서울시뮤지컬단의 2025 시즌은 ‘웃음, 가족, 사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채워진다. 감동과 즐거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세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로 소개할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05/29-06/15)는 뮤지컬 장르에 첫발을 내딛는 오합지졸 프로덕션이 ‘최초의 뮤지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쾌한 코미디와 진한 감동으로 그려낼 창작뮤지컬 초연 무대다. 원치만 고집하는 중앙정보부 실장과 실력이라곤 없는 연출가의 기상천외한 충돌은 폭소를 자아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작품을 완성해내는 과정은 가슴깊은 울림을 남긴다. 연출가 김동연·극작가 박해림·작곡가 최종윤이라는 뮤지컬계 드림팀

이 함께해 독창적인 무대와 음악으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봄날의 따스함을 담은 <다시, 봄>(도시별 공연 일정 상이)이다. 2022년 초연을 시작으로 3년간 서울에서 공연했고, 올해 화성·제주·세종·안산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관객과 공감의 온기를 나눈다.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아내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힘차게 인생 2막을 향해 내딛는 이야기다. 유쾌하면서도 강렬한 감동은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의 문화생활을 책임질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하고 있다. 찰스 디킨스의 고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뮤지컬로 탄생할 이 작품은, 탐욕스러운 스쿠루지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화려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낸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겨울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2025년, 서울시뮤지컬단은 신선한 감각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관객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동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으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니 올해, 마음을 울리고 웃게 할 서울시뮤지컬단의 무대를 놓치지 말자.

다채로운 노래와 계절의 향연 서울시합창단

글 채수경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2팀 프로듀서

서울시합창단이 2025년을 맞이해 다섯 편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봄과 가을을 수놓는 합창 명곡으로 구성된 명작 시리즈부터 우리 가곡의 향연이 펼쳐지는 가곡시대, 여름의 추억을 선사할 가족 음악회, 그리고 연말을 장식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까지. 올해 합창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합창, 피어나다>(04/16-04/17)는 서울시합창단의 명작 시리즈 공연으로, 합창의 정수를 들려준다. 멘델스존의 다양한 합창 기법이 담긴 ‘시편 42편’을 비롯해 다채롭고 아름다운 합창곡이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지휘자 박동희와 함께한다. 따스한 봄기운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합창의 깊이를 느껴보고 싶다면 놓칠 수 없는 무대가 될 것이다. <가곡시대>(06/13-06/14)는 우리 가곡의 정서를 진하게 느껴보는 공연이다.

‘시’가 있는 무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천재 작곡가 김준남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나운서 이금희의 따뜻한 해설과 성우 김세원의 시 낭송이 어우러진 깊이 있는 감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가곡의 서정성을 한층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여름 가족 음악회>(08/29)는 클래식 음악과 친숙한 대중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다. 합창 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져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낙엽 위에 흐르는 멜로디>(10/30-10/31)는 서울시합창단의 명작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합창 명곡을 엄선해 선보인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가 담긴 낙엽처럼 서정적이고 멋들어진 합창 선율이 울려 퍼질 이 공연은 계절의 감성을 더욱 짙게 물들일 것이다.

4년 연속 매진을 기록한 서울시합창단 <헨델, 메시아>(12/04)가 올해는 롯데콘서트홀에서 관객을 만난다. 바로크 음악의 송고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합창의 감동이 극대화된 이 무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음악적 경험 이 될 것이다. 서울시합창단이 선사하는 다섯 편의 무대, 그 속에서 각기 다른 감동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

마법 같은 공연의 순간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

글 김보름
세종문화회관 공연제작2팀

영화 전편 상영과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하는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는 2019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래 필름콘서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세종문화회관 대표 기획공연으로 자리잡았다. 2025년에도 시리즈는 계속돼 세종문화회관 곳곳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이벤트와 함께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TM 인 콘서트>(05/16-05/18),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TM Part I 인 콘서트>(10/24-10/26)로 오는 봄과 가을 각각 찾아온다.

앞선 다섯 편의 시리즈를 통해 완벽한 연주를 들려준 마에스트로 시흥 영^{Shih-}

Hung Young은 이번 두 차례 공연에서도 지휘를 맡는다. 더불어 지난해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의 큰 사랑을 받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한다. 5월에 찾아오는 6편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의 음악은 니컬러스 후퍼^{Nicholas Hooper}가 맡았다. 2010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그는 5편에 이어 6편에서도 ‘해리 포터’ 시리즈를 위해 환상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6편의 음악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29위로 데뷔, 당시 출시된 여섯 장의 ‘해리 포터’ 영화 사운드트랙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매거진 ‘버라이어티^{Variety}’가 “감성적으로 강렬하다”고 평가한 후퍼의 음악은 마법 세계의 장엄함과 스케일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독창적인 모티프로 가득 차 있다.

이어 10월에 진행될 7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첫 번째 파트는 아카데미 상에 빛나는 작곡가 알렉산드르 데스플라^{Alexandre Desplat}가 작곡했다. 그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킹스 피치>, <필로미나의 기적>, <세이프 오브 워터> 등 수많은 역작의 작곡가다. 데스플라의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스코어는 관객을 해리와 친구들의 모험 속으로 이끌며, 오랫동안 두려워한 마법 세계의 전쟁이 시작됨을 알린다. 시네콘서트^{CineConcerts} 대표이자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의 프로듀서·

지휘자인 저스틴 프리어^{Justin Freer}는 “해리 포터 영화 시리즈는 전 세계 수많은 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일생에 한 번뿐인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은 처음으로, 유수의 상을 받은 이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면서 동시에 영화가 대형스크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진정 잊을 수 없는 이벤트”라고 시리즈 기획 의도를 소개했다. 여기에 콘서트 프로듀서 브래디 보비언^{Brady Beaubien}은 “해리 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흥분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며, 이 경이로운 음악을 영화 전체와 함께 공연함으로써 관객이 계속해서 마법 세계를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물론, 세종문화회관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좀 더 입체적이고 환상적인 공연예술 경험을 위해 공연장 로비를 활용한 매력적인 포토존, 상품 판매, 식음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나이가 4월에는 공연의 즐거움을 확산하고자 관객의 일상 영역으로 더 파고들어 더현대 서울에서 해리 포터 팝업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관에 한정된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재미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도록 재생산된 콘텐츠의 극치를 맞볼 수 있을 것.

SPRING



코믹 COM!QUE

◎ 서울시극단
🌟 03/28-04/20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각색·음악·연출 임도완, 원작 카를 발렌틴

독일 극작가 카를 발렌틴(Karl Valentin)의 단편 희곡을 임도완 연출의 손으로 재탄생시켰다. 다양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의 웃음과 해학이 담긴 작품으로, 짧은 단막의 옴니버스 구성으로 빠른 전개와 속도가 특징이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연극이라는 장르로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집중력 있게 보여주며 새로운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파우스트 FAUST

◎ 서울시오페라단
🌟 04/10-04/13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이튼, 연출 엄숙정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문학 작품과 프랑스 낭만음악의 진수를 선보인 구노의 음악으로 탄생한, 인간심리에 관한 치열한 묘사가 돋보이는 역작. 오늘날 오페라·연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되는데, 이번 서울시오페라단의 무대는 오페라와 연극을 융합한 오펠레이오(play(오페라+연극) 형식으로 제작한다. 2022년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초연 당시 매진을 기록한 작품으로, 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돌아온다.



데카당스 DECADANCE

◎ 서울시발레단
🌟 03/14-03/23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오하드 나하린 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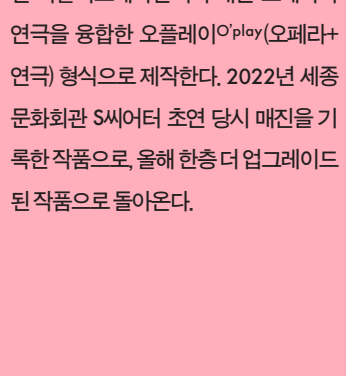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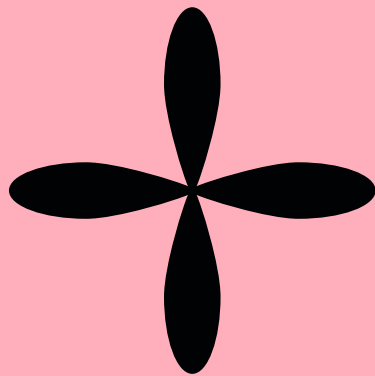
오하드 나하린의 대표작을 재구성한 콜라주 형식의 공연으로, 2000년 이스라엘 바체바 댄스컴퍼니(Batsheva Dance Company) 초연 이래 매 시즌 여러 단체에서 각색과 재창조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을 위한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오하드 나하린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무와 그의 독특한 움직임 언어 '가가(gaga movement language)'를 경험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즌 무용수들의 탄탄한 앙상블과 넘치는 개성을 만끽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합창, 피어나다 VOICES IN BLOOM

◎ 서울시합창단
🌟 04/16-04/17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지휘 박동희

합창 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서울시합창단이 엄선한 컬렉션을 시리즈 공연 무대에서 감상해보자.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포근한 봄기운처럼 관객의 마음속에 스며들 것이다. 활짝 피우는 합창음악의 꽃, 합창음악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공연.



창단 60주년 헤리티지 SMTOWN 60TH ANNIVERSARY CONCERT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04/18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이승철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 60주년을 기념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헤리티지' 시리즈의 본격 시작을 알린다. 작곡가 김영동과 황병기의 국악관현악 명작, 영화음악 작업에서 뚜렷한 개성을 보여준 작곡가 이지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를 역임한 이지혜의 작품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만나본다.



스피드 SPEED

◎ 서울시무용단
🌟 04/24-04/27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안무 윤혜정, 작곡 해미 클레멘세비츠·황민왕, 비주얼 디렉터 이석

장구가 만들어내는 장단은 동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속도로 변주된다. 박자의 세계는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춰나가고, 한국춤과 만나 무브먼트의 변화로 확장된다. 장단 사이를 넘나드는 리듬감을 바탕으로 춤을 운영하면서 한국무용의 새로운 흐름을 발견해본다. 무용수 열다섯 명의 몸으로 역동적으로 치달는 움직임을 구현한다.



동방미래특급 POST-ORIENTALIST EXPRESS

◎ 공동주최/안은미컴퍼니
🌟 05/02-05/04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안무·무대·의상디자이너 안은미, 음악감독 장영규

“저는 안무가이자, 여성이며, 한국인이고, 아시아인이며, 세계 시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언어를 찾고, 국적, 종교, 전통, 현대성, 성별 등 어떤 장벽도 초월할 수 있는 언어를 발전시켜야 할 때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아시아 대륙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의 역학이 새로운 전통과 혼합된 정체성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볼 때 아닐까요? 이 여행은 제가 속한 대륙의 다른 문화와 안무 언어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워킹 매드&블리스 WALKING MAD & BLISS

◎ 서울시발레단
🌟 05/09-05/18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안무 요한 잉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안무가 요한 잉거의 대표작 두 편을 더블 빌로 구성, 아시아 초연한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 유머와 우울함이 라벨 '볼레로'에 녹아들고, 현재에 실존하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키스 재럿의 재즈 음악 속에 살아 움직인다. 음악과 움직임이 직조한 풍경, 시대적 감수성을 담은 컨템퍼러리 발레의 매력에 녹아든 무대가 될 것. 영국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무용수 이상은이 객원으로 무대에 함께한다.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인 콘서트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IN CONCERT

- ◎ 기획공연
- ☀ 05/16-05/18
-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지휘 시흥 영, 연주 성남시립교향악단

매년 대극장에서 관객을 설레게 하는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가 어느새 여섯 번째 콘서트로 찾아온다.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의 여섯 번째 해, 해리와 친구들의 환상적인 모험과 성장을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함께 생생하게 경험해볼 수 있다. 해리 포터가 마법 포션의 달인이 되고, 행운의 물약을 획득하며, 호크룩스의 의미를 밝혀내는 순간에 함께해보자.



유령 GHOST

- ◎ 서울시극단
- ☀ 05/30-06/22
-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 극작·연출 고선웅

서울시극단장 고선웅의 신작.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 주민번호도 없다. 핸드폰도 카드도 없다. 과연 그들의 하루살이는 어떠할까? 존재가 있어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도 증명할 수 없는 떠도는 자들의 이야기.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THE FIRST GREAT SHOW

- ◎ 서울시뮤지컬단
- ☀ 05/29-06/15
-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 극작·작사 박혜림, 작곡 최종윤, 연출 김동연, 음악감독 신은경

이야기와 음악, 그리고 춤이 있는 뮤지컬 장르에 최초로 도전하는 오합지졸 프로덕션! 국내 최초의 뮤지컬 단체로 꾸준히 창작뮤지컬 작품을 개발해온 서울시뮤지컬단이 '최초의 뮤지컬'을 소재로 코미디드라마 작품을 선보인다. 국가 소속 원칙주의 중앙정보부 실장과 무능력한 연출가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술한 사건 사고를 겪으며 성장하는 감동적 드라마.

SUMMER

가곡시대 THE TIME AND STAGE FOR ART SONGS

- ◎ 서울시합창단
- ☀ 06/13-06/14
-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 구성·대본 윤석미, 해설 이금희

시와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무대. 서양음악의 매력과는 또 다른, 우리말 가사로 편안하게 와닿는 우리 가곡의 매력을 느껴보자. 서울시합창단 가곡시대는 '시'가 있는 무대'로 꾸려져, 음악에 더해 아름다운 문학 작품까지 만나보고자 한다. 시대의 감성과 예술이 짙게 밴 가곡으로 음악 그 너머의 이야기와 정서까지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

RE-프로젝트 REFRAMING PROJECT

-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 06/26
-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 지휘 최수열

국악관현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리프레이밍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국악관현악의 고유한 가치를 토대로 새롭게 바라보며 다른 형태로 재정리하거나 확장, 연결, 결합하는 창의적 발상과 해석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파격과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 수석객원 지휘자 최수열이 지휘봉을 잡고, 작곡가 이하느리가 우리 음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색다른 표현법으로 그려낸 위촉곡을 선보인다.



실내악 시리즈-소리섬 CHAMBER MUSIC SERIES

-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 07/25
-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 지휘 이승현, 연주 SMTO 앙상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부수석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SMTO 앙상블의 실내악 무대. 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국악기의 조합으로 아름다운 국악 앙상블의 매력을 선보인다. 두 가지 이상의 악기와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섬을 이룰 '소리섬'을 기대해도 좋다.

일무 ONE DANCE

- ◎ 서울시무용단
- ☀ 08/21-08/24
-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연출·시노그래피 정구호, 안무 정혜진·김성훈·김재덕, 음악 김재덕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 K콘텐츠! 2022년 초연 이래 명실상부 세종문화회관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일무>가 재공연된다.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 의식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감각적인 미장센과 역동적인 칼군무가 가히 압도적이다. 형형색색의 색감과 곡선의 미학을 살린 한복 의상은 관객의 시선을 빼앗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궁중음악은 귀를 사로잡는다.





유희웅×한스 판 마넨 RYU HOI-WOONG & HANS VAN MANEN

◎ 서울시발레단
 🌟 08/22-08/27
 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안무 유희웅·한스 판 마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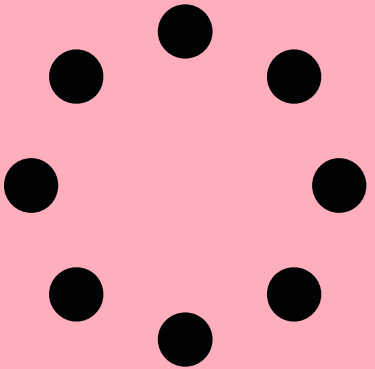
한여름, 뜨거운 컨템퍼러리 발레 무대가 펼쳐진다. 현대 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파이브 탱고스⁵ Tango's>와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에서 우리의 오늘을 담아 큰 호응을 받은 작품인 안무가 유희웅의 <노 모어 No More>를 더블 빌로 구성했다.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바탕으로 안무가 특유의 정교하고도 세련된 발레 움직임에 균형감 있게 담아낸 작품에 주목하자.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이자 한스 판 마넨 작품의 스페셜리스트인 최영규가 객원으로 참여한다.



수상음악 프로젝트-웨이브 WAVE : WATER MUSIC PROJECT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08/29
 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지휘 이승현

단원김홍도의 <월야선유도>에서 영감을 받아 물과 자연을 주제로 한 수상음악 프로젝트, 고대가요, 시조, 설화, 역사 등 한국 전통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검증된 국악관현악 작품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쳐낸다. 자연의 물결과 음악의 파동,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무한한 잠재력과 국악계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여름 가족 음악회 SUMMER FAMILY CONCERT

◎ 서울시합창단
 🌟 08/29
 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서울시합창단

여름방학기간, 서울시합창단이 어린이도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고전부터 대중적인 레퍼토리까지, 낯선 매력과 익숙한 반가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무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볼 만한 공연을 찾는다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서울의 중심에서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로 신나는 휴가를 떠나볼 수 있을 것이니.



AUTUMN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PART I 인 콘서트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OLLWS™ PART I IN CONCERT

◎ 기획공연
 🌟 10/24-10/26
 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시흥 영, 연주 성남시립교향악단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조앤 K. 롤링이 10년 넘는 세월에 걸쳐 써낸 이야기의 결말을 필름콘서트로 만나보는 시간.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보낸 마지막 해, 그 장대한 피날레의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둠의제왕과 맞서는 마지막 순간의 긴장감과 상실, 그리고 사랑의 감흥과 감동을 생생하게 느껴보자.



낙엽 위에 흐르는 멜로디 MELODY OVER THE LEAVES

◎ 서울시합창단
 🌟 10/30-10/31
 ①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출연 서울시합창단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두 번째. 국내 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름다운 합창곡을 엄선했다. 보석처럼 빛나는 합창곡이 섬세하고 조화로운 하모니를 통해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전한다. 풍요로운 계절의 낭만과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의 향연으로 초대한다.



통소소리 TOONGSO WHISTLES

◎ 서울시극단
 🌟 09/05-09/28
 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각색·연출 고선웅

조위환의 '최척전'을 원작으로 한 블록버스터 연극. 30년에 걸친 대서사시로 2024년 초연 당시 연극계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명·청 교체기를 배경으로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재회를 고선웅 연출 특유의 문법으로 풀었다. 국악기 연주와 함께 조선과 중국·일본·베트남까지 시간 공간을 속도감 있게 넘나들며 끊임 없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한스 판 마넨×허용순 HANS VAN MANEN & HUE YOUNG-SOON

◎ 서울시발레단
 🌟 10/30-11/02
 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안무 한스 판 마넨·허용순

지난해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하며 큰 여운을 남긴 한스 판 마넨 <캄머발레[Kammerballett]>와 허용순의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 Under The Trees' Voices>를 더블 빌로 선보인다. 깊어지는 가을, 섬세하면서도 짙은 감성을 담은 발레 두 편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캄머발레>에는 지난해 초연에 함께한 김지영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으며,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에는 영국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이상은이 객원으로 참여한다.

WINTER

미메시스 MIMESIS

◎ 서울시무용단
 11/06-11/09
 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안무 윤혜정, 작곡 유인상

지난 50년간 전통춤의 해체와 재결합을 통해 한국 창작춤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서울시무용단이 민속무·궁중무·교방무 등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전통춤을 현대화해 무대에 올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메시스'로 지칭한 예술의 본질을 찾아, 음악오행과 연결해 21세기 전통춤의 미메시스를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



트랩 TRAP

◎ 서울시극단
 11/07-11/30
 ①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재각색·연출 하수민, 원작 프리드리히 뉘렌마트

숨 막히는 논박! 눈길을 사로잡는 폴코스의 음식! 예상을 뒤엎는 의외의 반전! 프리드리히 뉘렌마트Friedrich Dürrenmatt의 단편 소설 '사고Die Panne'를 연극화한 작품이다. 2024년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올해 한 차례 더 들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삼면으로 구성된 객석에서 치열한 연기 공방을 보고 싶다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아이다 AIDA

◎ 서울시오페라단
 11/13-11/16
 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김봉미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가 남긴 걸작으로,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대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참신한 구성으로 대극장 무대에 어울리는 웅장한 작품을 그려낼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 파라오의 딸 '암네리스'의 삼각관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라다메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월계관을 바치겠다며 부르는 주요 아리아를 비롯해 웅장한 합창이 가세하는 음악을 만끽해보자.



믹스드 오케스트라-넥스트 레벨 MIXED ORCHESTRA - NEXT LEVEL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1/21
 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이승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기존 국악관현악 작품의 각색이 아닌, 오마주 형식의 창작으로 재탄생하는 '넥스트 레벨'을 시도하고자 한다. 2022년 이래 '믹스드 오케스트라'를 통해 선사해온 음악적 확장성을 이어가고자 국악관현악과 서양악기가 조합된 배합관현악으로 한층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국악관현악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녹여낸 믹스드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헨델, 메시아 MESSIAH BY G. F. HANDEL

◎ 서울시합창단
 12/04
 ① 롯데콘서트홀
 ◆ 출연 서울시합창단

4년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서울시합창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올해는 롯데콘서트홀에서 감상한다. 연말을 앞두고 그간의 추억과 수고를 돌아보며, 합창이 품은 온기와 감동적인 아리아로 얼어붙은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진다. 국내외 정상급 음악가와 협업해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 웅장한 합창으로 극대화되는 바로크음악의 숭고함, 한해의 음악적 정점을 장식할 감동의 무대로 관객을 초대한다.



오페라 갈라 OPERA GALA

◎ 서울시오페라단
 12/13
 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예술감독 박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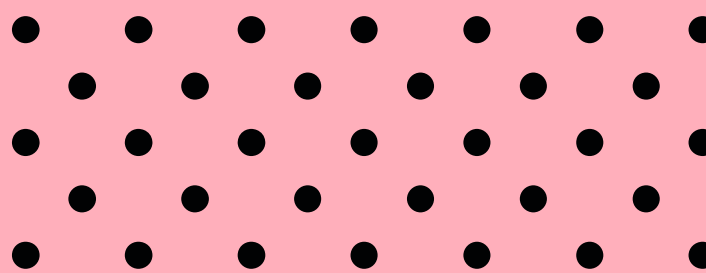
한자리에서 만나는 오페라 명곡과 오페라 스타! 서울시오페라단이 연말이면 준비하는 갈라 공연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으로 총출동한 한국 오페라계 스타들과 다채로운 오페라 아리아 레퍼토리의 조화를 만나보자. 작품별 해설이 함께해 오페라 입문자도 친근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2024년 해설자로 깜짝 등장한 전현무 아나운서에 이어 올해 친절한 진행으로 함께할 해설자를 기대해볼 만하다.



정명훈×KBS교향악단 베토벤 9 CHUNG MYUNG-WHUN × KBS SYMPHONY, BEETHOVEN 9

◎ 기획공연
 12/30
 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정명훈, 연주 KBS교향악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완벽한 공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국내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KBS교향악단의 만남으로 2025년 피날레를 장식한다. 계관지휘자로 KBS교향악단과 한층 더 굳건한 호흡을 자랑하는 정명훈이 선사하는 '인류 최고의 걸작'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만난다.



S e J o n g
e a s o n
25

intermission

2025년을 맞이하며 예술 현장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1.23Thu
10AM

구독·패키지 오픈

세종시즌

2.6Thu
10AM

개별 공연 티켓 오픈

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www.sejongpac.or.kr

1부를 열정적으로 즐긴 독자도, 입장 타이밍을 놓쳐 이곳에 곧바로 도착한 독자도, 모두 환영합니다.

잠시 극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휘몰아친 감흥에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 대한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시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80년의 역사, 80살의 기억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의 현자 아마두 함파테 바 Amadou Hampâté Bâ가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말한 이 문장을 읽고, 역사란 무엇인가 생각한다. 최근 한 원로 트로트 가수 S의 별세 소식이 며칠간 뉴스로 이어졌다. 그의 죽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진 이유는 그가 유명해서도,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자극적인 정보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내게 세대를 초월해 우리 가족을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30년 전,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나는 3대가 살아가는 집안의 ‘슈퍼 디바’였다. 매주 일요일 <전국노래자랑>의 실로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밥을 먹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뛰어 들어가 오프닝 곡에 맞춰 신나게 춤추며 재롱을 떨곤 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구석 스테이지’는 막을 내렸지만, 조부모와 살아온 20여 년간 <전국노래자랑>은 온 가족이 공유하는 단골 화제였다. 그중에서도 트로트계 ‘희대의 라이벌’ S와 T의 경쟁 구도는 언제 들어도 흥미로운 이슈였다. 아주 오랫동안 S는 ‘할머니가 T보다 좋아하는 가수’였다. 그랬기에 그의 운명은 내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으로 다가왔다.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의 해다. 한국도 광복 80년을 맞는다. ‘8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순을 넘긴 노공, 가계家系로 보면 3~4대에 걸친 세대다. 이기나긴 세월은 전쟁, 분단, 이산의 비극을 경험하지 못한 연령층이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남을 암시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도 점차 사라져간다.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과 1인 미디어 플랫폼은 역사의 상흔을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소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 사고까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온라인에서 폭력은 범람하고, 죽음은 라이브로 방송되며, ‘숏폼short form’의 시대에 추모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슬픔과 애도는 공감을 뿌리 삼아 피어난다. 공감은 상상과 사유의 토양에서 자란다. 더 많은 조회 수, 더 높은 자극을 좇는 인플루언서가 편집한 영상은 우리에게서 사유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원초적인 반응만 양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포스트메모리Postmemory’ 담론이 떠오르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교수 메리앤 허시Marianne Hirsch가 2000년대 이후 이론화한 개념이다. 전쟁, 학살, 식민지 등 비극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전 세대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전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해 들은 이야기임에도 감정적으로 깊이 연동돼 마치 자신이 겪은 기억처럼 느끼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수많은 미술작가도 자신의 부모 세대나 조상이 겪은 역사적 사건을 작업의 주제로 삼아 포스트메모리를 시각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나 사진의 다큐멘터리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몰입형 설치,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퍼포먼스 등 감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변화의기점은 무엇일까? 21세기가 디지털 시대라서? 젊은 작가일수록 기술기반의 매체가 친숙하기 때문에? 영상 언어가 전통 장르보다 내러티브를 구현하기에 적합해서?

올해 전 세계의 주요 박물관·미술관에서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유혈 참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나라 안팎의 현실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올해를 ‘냉전 후 가장 위험한 한 해’로 예견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조정, 끝이 없는 분쟁과 내전, 경제 불황의 장기화, 국내의 탄핵 정국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다 함께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할 시점이다.

유년 시절 텔레비전을 매개 삼아 가족과 보낸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한 데는 ‘공동의 기억’이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 텔레비전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늦저녁 거실에 모이는 이유였다. <전국노래자랑>을 틀어놓고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며 깔깔대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보면서 생면부지의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때가 ‘브라운관 시대’라면, 지금은 ‘OTT 시대’다. 손바닥만 한 스크린과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영상을 골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가족의 얼굴을 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정신적으로 스카임하는 기회가 적을수록 스크린 너머 타인의 죽음은 점점 더 많고, 쉽고, 가벼워진다. 아마두 함파테 바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5년 우리의 눈앞에는 활활 불타며 사라지는 천만 개의 도서관이 있다.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나의기원으로서 윗세대를 떠올리듯, 나는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또 어떤 기억을 물려줄 것인가….

이현은 ‘아트인컬처’ 부편집장이다.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 전담심의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평가단 위원, 기업은행 아트플라자 제안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croissant_whale

국악 생태계의 세포 분열

특별한 광고 문구를 봤다. “무료 교육 안내·가요(트로트)·민요·동요·장구가락·장단교육.” 민

요·동요는 알겠는데 가요? 여기에 트로트라니, 장구의 영역이 이렇게 넓었던가. 보통 사물놀이 가락을 배
우지 않나. 이것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문화강좌라니. 아하, 우리 동네 중국집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열심히
치는 트로트 장구는 여기에서 배운 것이 틀림없다!

무언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이 문구는 웃음 너머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했다. 혹시 국악이라
는 영역을 (또는 시장을) 한정 지어 생각한 건 아닐까? 트로트를 부르면서 치는 장구는 국악인가? 국악기
로 연주하는 록은 국악인가? 창극은 결국 뮤지컬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악은 장르가 아니라 국악이라는 생태계 안에 궁중·풍류·민속예술을 포함한 고전음
악, 퓨전, 록, 팝, 인디밴드, 뮤지컬과 연극의 사이쯤 되는 창극·소리극·음악극 그리고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연화… 이미 다양한 음악 장르가 포진된 것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공연예술 가운데 국악(한국음악)의 공연 건수는 7.4%, 티켓 예매 수 비중은 2.7%에
이른다. 처참한 수준이다. 점유율이 10%도 채 안 되는 국악이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다니 과
도한 세포 분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국악의 최신 트렌드를 논할 수 있을까 싶지만 흥미롭게도 그 어떤 분야보다 뜨겁고 활
발하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랄까. 양악처럼 쇼팽 같은 기존 레퍼토리를 소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연
극처럼 새로운 작품을 쏟아낸다고 관객의 사랑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떤 국악은 플레이리스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국악은 퍼포먼스에 가깝다. 그만큼 다양한 표현력을 국악으로 폭발시키고 있다. 그 희한한 현
상을 포착해보자.

먼저 경연과 TV 매체를 통한 소리꾼의 부각이다. 광복 이후 국악사의 흐름을 기악이 주도한 적
이 있다. 이는 대학에서 엘리트 음악가를 키우는 과정에 잠시 주도했을 뿐 대중에게 가까운 이들은 원래 노
래였다. 19세기 판소리 8명창이나 일제 강점기 레코드판에도 남긴 김창룡·이동백·이화중선을 떠올려보
면 알 것이다.

TV 경연 프로그램은 국악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스트롯>의 송가인을 기점으로, 성공하려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각성이 생겼다. 이후 국악인의 경연 프로그램 도전이 늘어났다. 그 정점은 <풍류
대장>이다. 기존 퓨전음악 풍의 밴드음악이 점차 심사위원으로 대변되는 청중을 의식하고, K팝의 메커니
즘을 일부 수용하면서 놀라운 장면이 종종 등장했다. 자기 색깔을 찾아 음악을 하는 흐름이 포착됐고, 서도
밴드·구민지·최예림 같이 스스로 서사를 만드는 이들이 나타났다. 소리 수련으로 다져진 가창력과 극적
표현이 발휘될 기회가 그간 없었을 뿐 경연에서 이들의 활약은 당연했다. 사람들은 이들의 도전을 기꺼이
즐기고 국악인은 조금씩 대중의 감성에 눈뜨기 시작했다.

창극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립창극단은 기존 레퍼토리의 변용에서부터 웹툰 원작의 <정년이>

같은 새로운 이야기를 창극으로 만들고, 새로운 주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면서 관객 유입이 빠르게 이
뤄졌다. 뮤지컬 시장이 확장되면서 비슷한 유형의 공연예술인 창극에도 영향이 있는 것일까? 김준수·이
소연·유태평양·김수인 배우의 팬덤이 생기면서 공연장에 커피차가 등장하고, 특정 배우의 캐스팅을 보기
위한 티케팅이 치열해졌다. 창극뿐만 아니라 이자람·입과손스튜디오·박인혜의 소리극은 작품의 완성도
와 더불어 시대정신을 담아내며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기악의 흐름을 보자. 연주자의 창작이 주가 되는 팀들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 진짜 국악이 무
엇인지를 고민하며 대학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민간 풍류, 잡가, 굿음악, 풍물을 익히고 창작의 소재로 삼는
팀들이 생겨났다. 또 철현금이나 양금 같은 특수악기도 급부상했다.

유학을 통해 음악 색깔을 찾는 이들도 생겼다. 국악 전공자의 유학은 음악인류학 전공이 주를 이
뤘지만, 최근 즉흥음악·재즈와 같이 연주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음악적 표
현을 가져오는 데 주목한 것이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음악을 해체하거나 소리
의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강렬해지면서 이것이 과연 음악의 범주인가 싶은 퍼포먼스도 존재한다.

흥미롭게도 퓨전국악은 유튜브와 쇼츠로 유입됐다. 감상자를 겨냥해 만든 음악이다. 쇼츠는 조
회 수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익숙한 가요나 탱고 또는 서유럽 음악을 편곡해 연주하고, 외모 관리가 필수
이며, 짧은 시간 내 사로잡을 킬링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유튜브 '야금야금'의 성공과 함께 젊은 국악인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소셜미디어로 소비되는 국악은 일상적이고 유입에 대한 문턱이 낮기에 다수와 접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음악도 변화가 보인다. 지금까지 이들의 생존 방식은 연주 목적을 상실했으니, 음악만 떼어
무대화하거나 대학 커리큘럼 혹은 콩쿠르 연주곡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악과 함께 문
화를 가져왔다. 공연화된 제례악인 국립국악원 <나례>, <중묘제례악>, <사직제례악>은 과거 문화의 맥락
을 살피면서 음악의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악관현악도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6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국악관현악은 한때 존재에
대한 회의가 팽배했다. 그런데 지난 2023년과 2024년 열린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를 통해 젊은 지휘
자의 세대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곡의 난도가, 단원의 기량이 높아지면서 지휘자의 음악적 역량에 따라
전체 연주가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악관현악이 국악의 한 분야로서 탄탄히
다져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올해 9월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유수의 국악관현악
단이 한데 모인다고 하니 주목해보자.

이 땅의 음악환경이 모조리 같이 엮여진지 벌써 한 세기에 가깝다. 존재의 위협을 느껴가며 국
악은 살아남기에 주력했다. 반면 K콘텐츠 시장이 세계로 확장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은 정체성 발현을 위

해 국악적 요소를 끌어온다. BTS 슈가는 ‘대취타’를 부르고,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지수의 거문고 연주를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질적인 문화를 섞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소스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서태지의 ‘하여가’가 장르 간 섞임을 의도했다면, 지드래곤의 ‘넬리리야’는 민요 자체가 창작의 씨앗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악 창작에도 자연스레 드러난다. 문화의 경계가 충분히 흐려졌고, 젊은 세대가 갖는 국악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창작자의 음악적 취향이나 표현이 강화되고 있다. 향유자 역시 점점 국악을 여러 장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자신만의 취향으로 선택하니 다행이랄까.

음악은 사회적 흐름과 같이한다. 음악이 음악만으로 사랑받는 시대는 지나고, 향유하는 플랫폼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험적 감상이다. 관객과의 감성적 공유가 이뤄지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면 계속 찾게 되고, 그 음악은 살아남는다. 지원금을 받고 치르는 일회성 공연은 지양하고, 작가적 마인드를 가진 예술가의 지속성이 드러나면 좋겠다. 콘텐츠의 연결은 중요하다. 여기에 공연장의 음악이 음반·굿즈, 그리고 청중이 소통할 공간으로 잘 연결된다면 어떨까. 음니보어인 나 도 국악 덕질 좀 해 보게 말이다.

구수정은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글쓰기를 한다. 제4회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대상을 받으며 평론가로 등단했다. 에세이 ‘가끔은 혼자이고 싶은 너에게’, ‘마음을 듣고 위로를 연주합니다’를 썼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공예문화

공예가의 작업을 작가의 세계관을 담은 작품 활동이자 생활과 친근하게 재인식하게 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 오브제, 민속품이라는 인식이 컸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개최된 비엔날레는 대중의 인식에 전환을 시도한 상징적인 행사였다. 이때 시작된 경기도자비엔날레·청주공예비엔날레는 전시와 체험·학술행사 등 관람객 참여 행사가 연계 구성됐다. 비엔날레는 예술감독이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되기에 종합적이면서도 시의성을 담고 있다. 초기의 화두는 공예의 본질, 작가의 창작 세계를 반영한 작품이자, 본래 일상생활에서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현재적 물질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그 개념을 제시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본격화했다.

다양한 유형의 전시와 행사·연구가 점차 증가했고 공예트렌드페어·핸드메이드페어 등 공예가·공방·산업체가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는 행사도 활성화했다. 2010년대부터 2020년대 공예 행사의

증가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공예백서’ 발행이 시작된 2012년 전시, 국제 행사, 지역 축제, 복합 문화 행사, 공모전 등 총 518건의 공예 행사가 열렸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별 인원 제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보다 2배로 증가한 1,062건이 개최됐으며 유형도 다양해졌다. 엔데믹에 이른 2022년에는 1,808건의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공예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호응이 없으면 위축되기 마련이다. 수치로 나타나는 급격한 증가세는 공예와 대중 간의 소통이 그만큼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시회에 가면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친절할 설명도 있고, 생활에 유용한 소품도 상당히 많다.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살펴보면 작가의 이야기를 읽은 후 손가락이나 컵·책갈피와 같은 소품을 구매하고, 그 작가에 대해 다시 찾아보고 흥미를 느껴 또 전시를 찾고 작품을 사게 된 이야기, 전시 관람기와 인증사진 등을 자주 본다. 2020년대 요즘, 확실히 예전보다 공예는 친근해졌다.

공예에 관심이 증가할수록 함께 활성화하는 것이 전시다. 최근 공예가의 활동을 보면 자신의 세계관을 응축한 작품 활동과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유형과 주제를 지닌 전시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이뤄진 2022년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1,808건 행사 중 전시가 차지하는 개최 비율은 92.4%에 해당하는 1,637건이다. 개인전이 43.6%, 기획전·공모전·졸업전 등이 포함되는 단체전이 56.4%다.

전시 주제와 공간도 다채로워졌다. 2024년 전시를 보면 기존의 미술관·박물관 같은 전문 공간은 물론 공예가와 기획자의 협업으로 창덕궁 같은 궁의 공간을 활용해 조선 시대 왕실 공예품을 재해석한 전시도 열리고, 주택이나 건물의 로비 등 일반 생활공간을 활용하기도 했다. 전시 주제도 공간, 특정 기술, 공통 분야, 전통이나 생활과 같은 삶을 연계한 문화적 테마, 개인적인 생각이나 서사, 소설이나 동화 등 이야기의 차용,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관한 생각과 해석 등 굉장히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공예가의 적극적인 활동도 눈에 띈다. 도록에 담기는 공예가의 이야기는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해졌다. 아티스트 토크 같은 연계 행사를 개최해 대중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도 활발하게 열린다. 또 단체전을 중심으로 전시 주제나 최근 공예계의 경향에 관한 이론가·공예가·기획자의 학술적 연구 발표와 토론을 연계 행사로 마련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양해진 전시 주제와 공간, 소통 방식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한다.

요즘 나의 개성을 담은 여가와 소비는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끔 기분을 환기하고 싶거나 나의 취향을 반영한 물건을 쓰고 싶을 때 공예품을 사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트숍·공방·프리마켓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숍,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편리하게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도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원데이 클래스나 정규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만들고 배울 수 있는 공방이 동네에 하나는 있을 정도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 기간은 수공예 취미 확산에 있어 주목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19 초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어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이때 부상한 여가 중 하나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수공예였다. 공예가나 공방·단체 등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과 서적은 공예품 제작의 길라잡이가 되었다. 실제 이 시기 공예 관련 서적 출간이 증가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공예 관련 취미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도자·목공·금속과 잘 알려진 분야와 함께 여러 분야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그중 하나로 소개할 것은 재활용이다.

재활용은 헌 옷이나 양말·포장재 등 이미 한 번 사용한 것을 재활용해 새로운 공예품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많은 전시와 체험으로 소개됐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적 저변이 넓어진 것은 이 시기다. 주목할 점은 학교교육이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비대면 수업에는 만들기 수업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재활용이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공부하고 가방·인형·냄비 받침 등 생활에 쓸 수 있는 물건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흥미를 유도했다. 재활용은 현재도 전시나 페어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 학교교육도 유지 중이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 시기 학교에서 배운 재활용 작업을 지속하는 아이들과 성인의 작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나의 것을 만드는 취미 공예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를 돌아보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예는 활성화했다. 보고, 느끼고, 만들고, 함께 향유하는 공예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또 최근 K컬처의 확산과 해외 전시 및 교류, 공모전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예가와 공예 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 다행히 새로운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25년에도 새로운 시도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공예가 대중과 즐겁게 향유되기를 희망한다.

김세린은 공예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이자 평론가다. 201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4관 아카이브 연구책임자, KCDF 기획전 《장식의 힘》(2018) 공동 큐레이터 등으로 참여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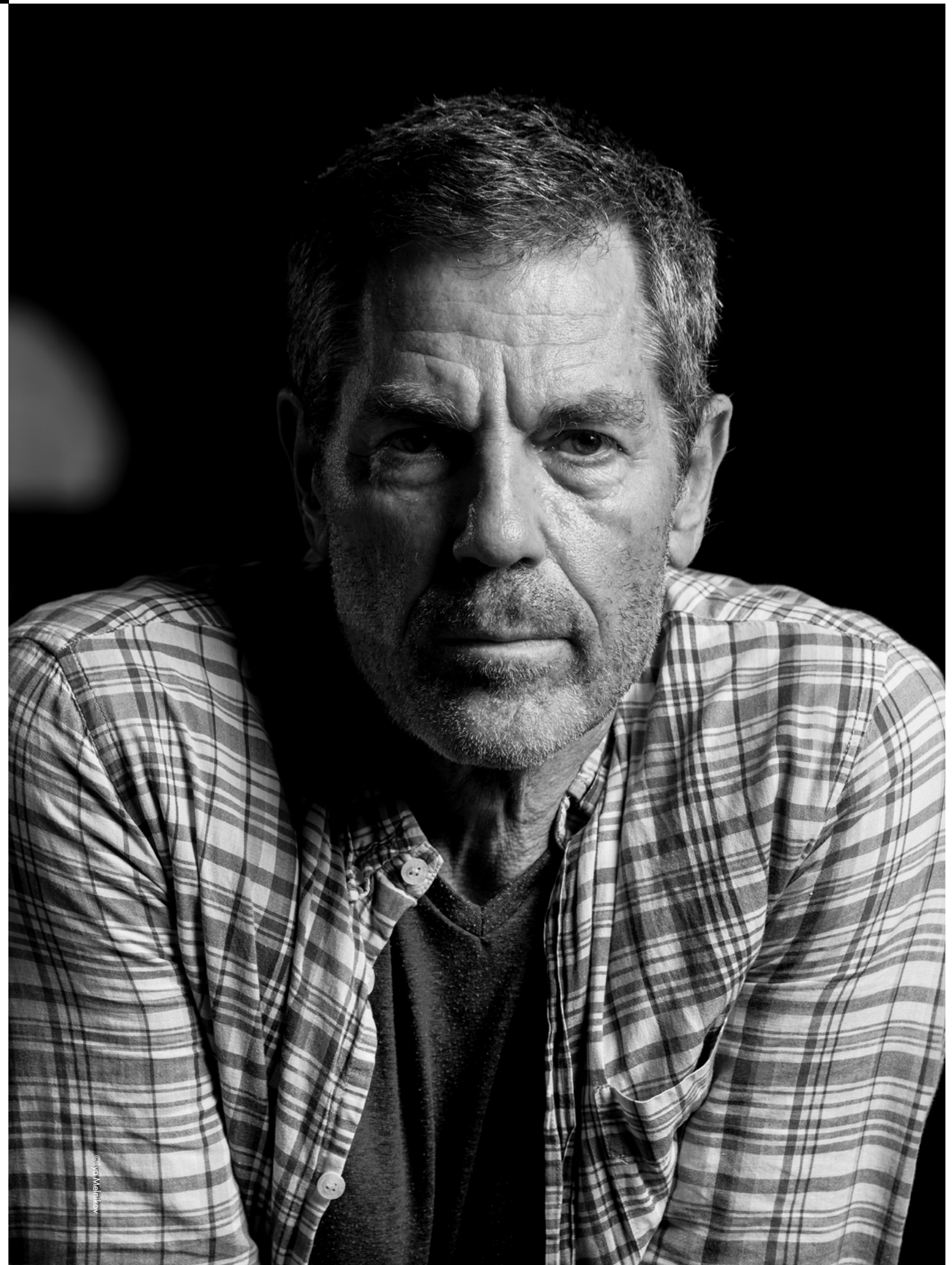


©Asca/Boisheva Dance Company

오하드 나하린, 혁신적 안무가의 귀환

글. 제한정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서울시발레단 <데카당스>
2025.03/14—03/23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안무 오하드 나하린
작품 구성
Anaphaza (1993)
Yag (1996)
Minus 16 (1999)
Three (Shalosh) (2002)
Seder (2007)
Venezuela (2017)
Anafase (2023)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 b.1952은 현대무용의 경계를 확장하고 움직임 탐구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한 안무가다. 그는 1990년부터 바체바 댄스 컴퍼니Batsheva Dance Company를 이끌며, 춤이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신체를 통해 경험하는 철학적 과정임을 증명해왔다. 그의 대표작 <데카당스Decadance>2000는 그러한 철학을 집약한 작품으로, 서울시발레단이 이번 시즌 첫 작품으로 선보인다.

가가, 몸의 경험을 다시 정의하다

나는 거울로 가득 찬 방에서 살았지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오직 나뿐이었어
그래서 내 영혼을 들고
거울을 부숴버렸지
이제 온 세상이
나를 위해 펼쳐졌어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노래 가사처럼, 무용수들은 흔히 거울의 방에서 자신의 몸을 조율하며 성장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대상화하고,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비평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함정에 쉽게 빠진다. 오하드 나하린은 무용 스튜디오에 거울을 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용수는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거울을 가리거나 부숴버려라.
춤을 출 때
거울을 사용하지 마라.
삶을 살 때도
거울을 사용하지 마라.
거울은 한계를 만든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Dance Insider', 2006

나하린의 스튜디오에는 대신, 무용가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네 몸을 액체처럼 흘러보내봐.
무게를 느끼되,
중력과 친구가 돼야 해.

무용가의 언어가 견인하는 것은 특정한 동작이 아니라, 감각, 인식, 그리고 경험이다. 또한, 흔히 따라하기라 부르는 강사의 시범보다는 언어적인 이미지를 통해 무용수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모든 움직임은 각각의 신체 상태와 감각에 따라 다르

게 표현될 수 있기에, 무용수의 개별적인 신체 경험을 존중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새로운 움직임 트레이닝이 아니라, 지각perception과 몸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철학적 개념과 맞닿아 있다. 현대무용계에서 '가가Gaga movement language' 테크닉으로 잘 알려진 이 움직임 방식은 기존의 테크닉 훈련이나 춤의 스타일을 넘어서 신체 자체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확장됐다. '가가'는 그가 허리를 다친 후, 대체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개발했다.

나하린은 기존의 무용 훈련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개별 무용수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테크닉이 아니라 신체를 지각의 중심으로 두고, 기존의 훈련에서 배제된 '내재적 감각internal sensation'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발레나 현대무용의 기존 훈련 방식은 신체의 외형적 정확성을 중시한다. 다리의 각도, 팔과 손끝의 위치, 균형과 중심축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가가는 신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한다. 움직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이다.

나하린은 이를 '움직임의 본능'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본래 움직임의 가능성을 무한히 내재하고 있지만, 훈련 과정에서 오히려 이를 잊게 된다는 것이다. 가가는 이러한 신체 감각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무용수들은 가가 트레이닝의 과정을 탐구exploration, 실험experimentation, 발견discovery, 연구research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한다.

춤, 언어 이상의 언어

1952년 이스라엘 키부츠 미즈라에서 태어난 나하린은 공동체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였으며, 아버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움직임과 신체 표현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그가 본격적으로 춤을 시작한 것은 22세부터였다. 이는 전통적인 무용수들의 경로와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뉴욕으로 건너가 마사 그레이엄 Martha Graham 무용단과 줄리아드 학교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습득했다.

그는 뉴욕에서 전통적인 현대무용 기법을 배우면서도 이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춤이 가진 에너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충격”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기존 형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움직임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한 감각이 절묘하게 융합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움직임 언어를 개발했다. 예컨대 작품〈Minus 7〉에서 유대교 전통 노래 ‘에하드 미 요데이’Echad Mi Yodea’를 반복하는 무용수들의 강렬한 몸짓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현실을 상징한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의 춤은 자유롭고 역동적이면서도, 때로는 거칠고 도발적이다. 작품은 특정한 문화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며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방식은 한국 무용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또한 오하드나하린은 기술적인 완벽

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춤의 본질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창조하며 리듬을 찾고, 순간에 몰입한다. 그래서 춤은 일종의 명상적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땀을 흘리는 경험이 된다.
‘The Talk’, 2022년 인터뷰

나하린은 ‘완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신화라고 주장한다. 많은 무용수가 완벽을 목표로 하지만, 그는 완벽이 아닌 ‘홀름함’greatness’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완벽할 필요 없이도
홀름할 수 있다. 오히려
완벽한 것이 지루할 수도 있다.
특히 발레에서는 더욱 그렇다.
같은 동작을 하는
두 무용수를 보더라도,
한 명은 매혹적이지만
다른 한 명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나하린은 무용수에게 “정신을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척추가 따라올 것이다Free your mind, and your spine will follow”, “에포트를 즐거움과 연결해라Connect effort to pleasure” 또는 “둥둥 떠다녀라Float” 등의 언어적 표현을 던진다. 그는 춤이 단순한 공연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도 춤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춤은 단순히
공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것만도 아니다.
혼자서도 춤출 수 있으며,
음악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두가
춤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춤을 취야 한다.

나하린은 가가를 개발하기 전, 움직임의 질과 에너지의 흐름, 중력의 활용, 경쾌함, 그리고 유머 감각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기존 무용의 정형화된 형태나 완벽한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신, 몸이 움직이는 방식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경험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

매회 새 버전으로 거듭나는 작품

서울시발레단이 선보이는 오하드나하린의 대표작 〈테카당스〉는 여러 작품에서 주요 장면을 발췌해 재구성한 공연으로, 안무가의 예술적 철학과 스타일을 집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도 꾸준히 공연된 〈테카당스〉는 매번 다른 버전으로 구성되며, 무용수와 안무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띤다. 파리 오페라 발레·뒤셀도르프 발레 등에서도 공연되며 큰 사랑을 받았고, 서울시발레단이 선보일 버전 역시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안무로 소개될 예정이다.

“나는 무용수를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라 움직임을 탐구하는 예술가로 본다. 춤은 테크닉을 넘어선 감각의 경험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테카당스〉는 특정한 스토리라인이 없는 작품이다. 대신, 나하린의 여러 대표작에서 선택된 장면들이 공연마다 새롭게 변형된다.

서울시발레단에선 클래식 발레 교육을 받은 무용수들이 가가 테크닉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대에서 펼쳐낼 예정이다. 작품 특성상 안무가 특유의 부드러운 면에서도 강렬하고, 혁신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특히 무대에 선 무용수의 신체는 전통적인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강조하기보다 중성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며, 동작은 근육과 관절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작용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즉흥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각 무용수는 독창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깨뜨리며 대답하고 자유로운 움직임과 탈경계적 신체 표현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무용수들은 기존의 발레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요소를 결합한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춤의 형태를 탐색한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변주가 아니라, 무용이 신체와 감각의 경계를 넓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안무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무용 형식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조합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최근 몇 년간 오하드나하린의 작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바체바댄스 컴퍼니가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점을 문제 삼아 일부 지역과 무용단이 그의 작품을 보이콧한 것 이와 관련해 그는 “창조적인 작업은 파괴와 정반대의 행위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악의 세력에 맞서 창조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취하는 군사적 행동을 비판했다. “전쟁 범죄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이기에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2023년 10월 9일 이후 이스라엘은 존재적 위협에 놓여 있지 않았다. 상황은 아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다.” 안무가는 무용이 정치적 논쟁을 초월해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미디,
너무 괜찮다

연출가 임도완

글. 장경진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Studio Kenn

서울시극단 <코믹>이 3월 28일부터 공연됩니다. 독일 배우이자 극작가 카를 발렌틴(Karl Valentin)의 단편 희곡 아홉 편을 재구성했는데요. 작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서울시극단과 작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고선웅 예술감독이 카를 발렌틴의 희곡집 '변두리 극장(Theater in der Vorstadt)'을 건넸어요. 재밌더라고요. 사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희극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희곡은 100여 년 전인 1923년에 쓰였는데도 익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문의하기 위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 때 통화가 이 부서 저 부서로 옮겨지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요. 밖에서 보면 코미디인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사는 게 다 비슷하다 싶어요. 우리나라 관객의 정서에 맞고 흥미로운지를 기준으로 작품을 고르고 각색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작품의 경우엔 관객이 가깝게 느끼도록 노력하기도 했어요.

음니버스 형식이지만, 아홉 개의 이야기는 좀 많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작 자체가 아주 짧아요. 국내에서 '변두리 극장'이 몇 번 공연된 적은 있는데, 그때도 그중 좀 긴 작품을 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곡집을 읽고 짧은 호흡의 작품을 연결해 여러 배우가 다른 인물을 번갈아가며 연기하면 그것만으로도 또 다른 재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배우의 변화가 관객에게도 흥미롭게 보이고, 앞에서 고수하던 입장이나 태도가 다른 장에서 전복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품을 어떤 순으로 배치할 것인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장마다 차이가 나지만 10분 안으

로 다 끝나요. 다양한 인물을 팔도 사투리로 구현한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각색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독일 작품이 관념적이기도 해서, 작품이 일상생활과 잘 만나게끔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선택한 게 사투리인데, '변두리 극장' 번역가의 글을 읽어 보니 카를 발렌틴이 쓴 원작에도 지역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다섯 살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사투리를 거의 다 잊어버

렸는데도 집안이 전남이니까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서는 좀 빠삭한 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이 하숙집을 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직종과 언어를 알게 됐죠. 드라마〈마당 깊은 집〉¹⁹⁹⁰ 같은 분위기였는데….(웃음) 당시에는 친구들보다 아저씨들하고 더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카를 발렌틴 작품에 정치·사회적 풍자가 많아요. 마지막 장의 ‘수족관’은 금붕어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작은 한 인물의 긴 독백이거든요. 이걸 배우 여덟 명이 나눠서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원작의 정서가 김민기의 ‘작은 연못’과 닮아 있어서 ‘작은 연못’을 비트처럼 깔고 대사를 랩처럼 구성했어요.

전작 〈스카펫〉과 〈우리 읍내〉
에도 랩을 사용했죠. 그간 연출한 작품에 음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연극에서 음악은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 하나요.

어떤 작품이든 관객의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코믹〉에서도 프롤로그 구성을 배치했어요. 배우와 관객이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코드도 교환하고 긴장도 풀어주고 노래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즐겁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무언가가 언어로 표현되면 그 정보들을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요. 그런데 음악이 더해지면 일단 계산하기를 포기해요. 흥겨우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관객의 마음을 여는 포인트로 음악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 작품에도 시작과 끝에 박세현의 시 ‘너무 괜찮다’로 만든 노래를 부르고, 장면 전환에 음악이 연주돼요.

관객의 즐거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다양한 희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코미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대가 실수할 때 웃잖아요. 그건 그 광대에게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두가 자신이 광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모순에서도 웃음이 발생해요. 이런 웃음의 철학을 아주 잘 정리해놓은 게 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의 ‘웃음^{Le Rire}’¹⁹⁰⁰이에요. 일부를 프롤로그에 차용했어요. 배우들에게 상황이 웃기더라도 연기적으로는 그 감정을 푸시^{push}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관객이 금방 알아채거든요. 비극은 힘이나 에너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희극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모든 연기가 그렇지만, 특히 희극은 테크닉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희극 작업이 어려운 건 코미디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섬세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는
--

데요. 〈코믹〉의 웃음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나요.

〈코믹〉에 수록된 작품뿐 아니라 ‘변두리 극장’ 작품 전체가 깔고 있는 게 ‘부조리’예요. 부조리도 상황, 계급, 공간 등등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부조리극이 대체로 무겁게 소개돼요. 아무래도 ‘부조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사뵈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가 그런데, 이 작품은 두 광대를 위해 쓰였거든요. ‘변두리 극장’을 읽으면서 웃음은 일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살면서 느끼는 부조리와 그 안의 웃음들. 요즘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느껴져서 허구의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 좋은 레퍼런스가 되기도 해요. 연기자들이 캐릭터를 찾기 힘들어하면 비슷한 역할의 누군가에서 가져와 보라고 해요. 누군가를 카피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사람이 달라서 절대 똑같은 수 없거든요. 결국 자신의 색이 묻어나오기 마련이에요.

병원이나 가게 같은 공간, 부부와 친구 사이 등 익숙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 오히려 배우들이 인물에 접근하기가 쉬우리라고 추측했는데요.
--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의 것이 그대로 무대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연극이 되진 않으니까요. 제가 연





출할 때 가장 집중하는 건 인물을 만드는데, 인물이 80% 만들어지면,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게 안 되면 극 자체가 아주 뼈격대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인물의 정보가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걸음걸이와 시선 같은 외형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예전에 피터 브룩Peter Brook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손을 들고 30초 동안 있어보면 어떤 상태가 온다고, 손을 들고 있는 정당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외형적 측면에서 의상은 사람이라는 건 축물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며 연습하기 시작하면 배우들에게 신발부터 분장까지 캐릭터의 외형을 스스로 생각해 오라고 해요. 그렇게 거대하고 뚱뚱한 이미지에서 시작해 인물을 정교하게 깎아나가요.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연히 만나게도 되고, 그 결과 인물의 전사가 자기 몸에 나이테로 그려지게 되죠. 결국 모든 게 테크닉이에요. 그게 없다면 막연해지기 마련이에요.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걸 어

서울시극단 <코믹>
2025/03/28 - 04/20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원작 카를 발렌틴
각색·음악·연출 임도완

떻게 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희극은 비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소개되고, 때론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희극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직된 관객이 깨어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희극뿐만 아니라 어느 극장에서나 다 그렇거든요. 저는 희극이든 비극이든 모든 작품에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작품에는 유머가 양념으로써 짭작 들어가고 빠져야 하죠. 그래야 공연이 뻑뻑해지지 않기도 하고, 아무래도 코미디가 좀 더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코미디가 많지 않아요. 있다고 해도 너무 구석진 곳에서 하고 있거나 웃음 코드가 지저분할 때도 있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희극 작업을 통해 이런 코미디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피지컬 시어터Physical Theater를 선보인 후 다양한 공연이 생긴 것처럼요. 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객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공연을 보는 동안은 관객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제목을 <코믹>으로 붙였나요?

처음에 나온 제목은 <동시상영>이었어요.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동시상영관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서요. 그런데 작품을 쭉 뽑아놓고 보니 안 어울리더라고요. 희곡집 제목인 '변두리 극장'을 그대로 쓰자니 세종문화회관이 변두리에 있지도 않고... 희극적 상황이 담긴 작품이고, 그걸 프랑스로 하면 '코미크comique'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결정이 됐어요. 작품 자체가 가진 발랄함이 제목에서부터 느껴졌으면 했어요. 무엇보다 이 작품이 가족과 함께 재밌게 볼 수 있는 편안한 공연이면 좋겠어요. 하도 시대가 복잡하니까, 웃음으로 마음을 다스려보면 좋지 않을까요.

CHOICE

연출가 임도완이 영향받은 희극 작품

SBS 예능 <좋은 세상 만들기> 중 '고향에서 온 편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 속 코너로 시골 어르신들의 일상을 다뤘다. 그중 자녀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가 큰 인기를 얻었다. "전 그게 클라운clown의진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자세로 서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분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게 또 통하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색한 모습과 말에 담긴 마음의 묘한 차이가 그 자체로 너무 웃겨요."

'맹진사댁 경사'



1943년에 발표된 극작가 오영진의 작품으로, 딸의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았다. "맹진사댁 경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희극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때 이 작품을 연출하고 졸업했는데요. '맹진사댁 경사'를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김우옥 선생님께서 셰익스피어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코메디아 델라르테로 풀어낸 공연 테이프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링 같은 무대에서 약속으로만 이뤄진 방식이었어요. 양쪽에 광대들이 있고, 음악도 연주하고. 당시에는 학생이었으니까 테이프에서 본 온갖 테크닉을 다 넣어서 작품을 연출했어요. 잊고 있었는데, 그게 제 작업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2009년 명동예술극장 개관 축하 작품으로 선보인 <맹진사댁 경사>(연출 이병훈) ©명동예술극장

제도의
상징,

양식의
탄생,

예술가의
역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60주년

글.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음악감독

ARCHIVE

국악계 전반에서 2025년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기대가 높은 한 해다.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는 첫해로 6월 5일 '국악의 날'이 제정되면서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이고, 가을에는 국내외 최초로 세계국악엑스포가 개최된다. 또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60주년을 비롯해 KBS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각각 40주년, 30주년을 맞는다. 국악의 성장과 함께 더욱 풍성해진 전통 중심의 축제, <정년이> 같은 작품을 통한 주류 미디어의 주목, K컬처의 글로벌 약진, 우리 예술가의 세계적 활약과 수준 높은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이 기념비적 시기를 관통하며 당대 국악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현대 국악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창단 60주년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도로서의 국악’의 상징,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965년 최초의 공공 국악관현악단으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출범했다. (1999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탄생은 새로운 제도와 국악의 현대화를 선언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초기 국악관현악단을 향한 기대와 비난은, 미완으로 시작한 새로운 제도가 꺾어내야 할 무거운 시대적 숙명이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근대화된 전통으로 호명하는 데 서구 관현악 양식의 차용은 당대의 환경과 선택 가운데 가장 실천이 용이한 방식이었을지 모른다. 한국에서 양악교향악단도 광복 후 11년이 지난 1956년 KBS교향악단(1969-1981년 국립교향악단)과 1957년 서울시립교향악단(1945년 창단한 고려교향악단이 모체)이 설립됐다. '민족음악'의 구성에 관심을 두던 당시 1957년 첫 해외공연인 동남아시아 순회공연에서 베토벤·브람스·시벨리우스 외에도 김성태와 김동진의 창작 민족음악을 선보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961년 정회갑 작곡의 '가얏고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협연 황병기)을 초연했다. 광복과 국가수립 후 '민족음악'은 반드시 수립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인데, 민족음악의 실현은 양악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50-60년대 민족 음악을 향한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청은 국악의 현대적 제도화로 연결됐다. 먼저 1955년 국악사양성소가 개소하고 (1972년 국립국악고등학교 개교),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를 창설했으며, 1960년 국악예술학교(2008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으로 교명 변경)가 설립됐다. 공연기관으로는 1950년 국립극장, 1951년 국립국악원이 차례로 생겨나고 1962년에는 국립창극단이 설립됐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예술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민속악 명인을 중심으로 창단했는데, 앞서 지영희의 주도로 1964년 구성된 45명의 국악예술학교 학생국악관현악단이 모태가 됐다. 초기 54명 단원(가야금·거문고·해금·아쟁·대금·피리·단소·당적·장고·바라·북·비파·양금)은 모두 국악예술학교 졸업생이었고, 이후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생이 배출되며 단원으로 참여한다. 국악의 현대적 제도화가 학교교육으로 시작해 미래 인재가 양성되고, 이들 '신국악인'은 국악관현악의 주역이 된 것이다.

commemoration

‘국악관현악’이라는 시대적 양식

국악관현악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대적 양식이었다. 1981년 대전 시립연정국악단, 1984년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1985년 KBS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기 전까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유일한 국악관현악단이었다. 악단의 초기 공연 양식은 기존 민속악의 악가무를 시작으로 점차 중주·협주곡으로 확대됐고, 합창, 국악가요, 사물놀이, 굿, 민요, 동요, 국악동요, 서양가곡, 음악극, 불교음악, 명상음악, 통일음악, 태교음악, 영상음악, 고려가요, 게임음악, 뮤지컬, 아시아음악, 종교음악, 환경음악, 미술음악 등의 양식으로 확장해나갔다. ‘국악 대중화’라는 국악계의 대명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천도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최근 국악계에서 재조명하며 국악관현악의 역사를 만든 국악관현악의 명작(마스터피스 masterpiece)인 이강덕·김희조·이해식·이성천·이상규 등의 작품도 모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통해 탄생했다. 현대음악과의 접목이나 양악 작곡가에게 작품을 위촉하는 일, 젊은 지휘자에게 성장 기회를 준 일 모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시대적 양식을 개척하며 앞서 해온 일이었다.

국악관현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양식은 처음으로 대규모 악단, 대형 무대, 대극장 공연에 적합한 공연을 구상/구성해내야 했다. 시대가 흐르며 크로스오버류의 장르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도, 해설을 겸한 렉처콘서트나 청소년·어린이 관객 교육을 통한 다양한 세대의 관객 확보를 위한 노력도 첫 국악관현악단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는 어느 악단이나 시도하는 보편적 양식이 됐다.

현대 국악과 예술가의 역사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작품뿐 아니라 그 일에 직접 참여해 실제 공연을 만들고 작품을 작곡하고 무대에서 연주한 현대 국악예술가의 역사이기도 하다. 악단을 이끈 단장인 유기룡¹⁹⁶⁵⁻⁶⁶, 지영희¹⁹⁶⁶⁻⁶⁸, 김희조¹⁹⁶⁸⁻⁷⁴, 한만영¹⁹⁷⁴⁻⁷⁵, 김용진¹⁹⁷⁶⁻⁸⁸, 김용만¹⁹⁸⁸⁻⁹², 김영동¹⁹⁹³⁻⁹⁹, 이상규¹⁹⁹⁹⁻²⁰⁰¹, 김성진²⁰⁰¹⁻⁰⁶, 박상진²⁰⁰⁶⁻⁰⁸, 임평용²⁰⁰⁹⁻¹¹, 김정수²⁰¹¹⁻¹³, 황준연²⁰¹³⁻¹⁶, 김철호²⁰¹⁶⁻¹⁸, 박호성²⁰¹⁹⁻²¹, 김성국²⁰²²⁻²⁴, 이승환²⁰²⁴⁻은 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기획자·예술행정가다. 그런가 하면 초기 작곡가인 지영희·김희조·홍원기·이강덕·이상규·이해식·조재선·이성천·김용진·박범훈·황병기에서 양악 작곡가 김홍교·서영세·서우석·이성재·강석희·백병동·김정길·이영자로, 그리고 새 세대의 작곡가인 김영동·황의종·김승근·지원석·김만석·원일·유은선·이건용·황성호·김성기·김대성·조원행·이준호·양승환·임준희·김성경·박경훈·김백찬·조원행·안현정 등으로 확장됐다.

감상과 관객의 역사를 이뤄야 할 국악관현악의 미래

그런가 하면 당대의 명인으로 기억되는 서공철·성금연·신쾌동으로부터 김영재·지순자·최경만·이종대·황병주·이재숙·홍종진·박용호·이태백·박환영·김일륜·원일·허윤정에 이르기까지 역대 단원의 면면도 화려하다. 그런가 하면 원영석·진성수 등 젊은 지휘자를 중용해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 국악과 예술가들의 역사가 된 것이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은 제1회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를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있다. 2024년 제2회 축제에는 신생 관현악단을 포함해 10개 악단이 무대에 섰으며, 매회 공연이 만석을 이룰 정도로 이제 국악관현악은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의 국악관현악단은 각각 개성, 지역성, 정체성을 담아내며 우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우리의 음악적 자산을 밀도 있게 담은 국악관현악단을 한자리에 모아 국악 현대화의 성취인 국악관현악에 다양한 색채를 담아 우리 음악의 오늘을 목도하며 미래를 견인할 중요한 사건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중심에 있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향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양식, 연행, 제도로서 국악관현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성장한 국악관현악 60년의 역사는 관객의 역사이며, 관객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고민의 역사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국악관현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이나 국악 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많다. 귀명창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국악 감수성이 보편적이지 않은 세대, 국악관현악의 미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시민이 함께 해 양식과 제도와 예술가의 국악관현악이 감상과 관객의 역사가 될 때 만들어질 것이다. 국악관현악의 진화는 우리 음악의 뿌리는 잊지 않되 동시대 일상의 음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이면서, 동시에 당대 관객에게도 주어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극장, 현대미술을 품다



최영욱, <Karma 2023 7-4>, 2023, 캔버스에 혼합매체, 180×160cm

극장은 열린 공간이다. 예술을 환대하고 사람과 매개하는 곳.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세종문화회관은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예술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극장이 비단 공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듯, 다채로운 예술이 공간 곳곳에 스며드니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세종문

화회관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공간을 새로운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 큐레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이 위치한 노들섬 공간에 현대미술 작품 11점이 들어섰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남측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달항아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영욱 작가의 '카르마Karma' 시리즈 6점을 마주하게 된다. 도자기 표면의 빙열을 통해 인생의 굴곡과 인간의 행위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미국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

해 국내외 우수한 기업과 단체에서 소장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는 달항아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달항아리처럼 살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영욱, <Karma 2024 9-12>, 2024, 캔버스에 혼합매체, 162×146cm

그안에 작가본인 삶의 이야기를 풀었고,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았고, 찾았다.

그가 그린 'Karma'는 선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선은 도자기의 빙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한다. 갈라지면서 이어지듯 만났다가 헤어지고 비슷한 듯하며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하나로 아우러진다.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어떤 운명 안에 삶의 질곡과 애환, 웃음과 울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기운을 담아낸다. 꾸밈없고 단순한 형태와 색감은 우리 마음 밑바닥의 측은지심 같다.

도자기는 작가본인 삶 속 기억의 이미지이고,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의 기억을 도자기에 담아내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되었다.

최영욱 작가 노트



김선형 <Garden Blue>, 2023, 합지에 혼합매체, 190x244c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복층 계단에서 전통 수묵화 기법을 청색 안료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이는 김선형 작가의 '가든 블루Garden Blue' 시리즈 4점을 만날 수 있다. 번지고 스며드는 물감으로 만들어진 단색조 청색 이미지는 자연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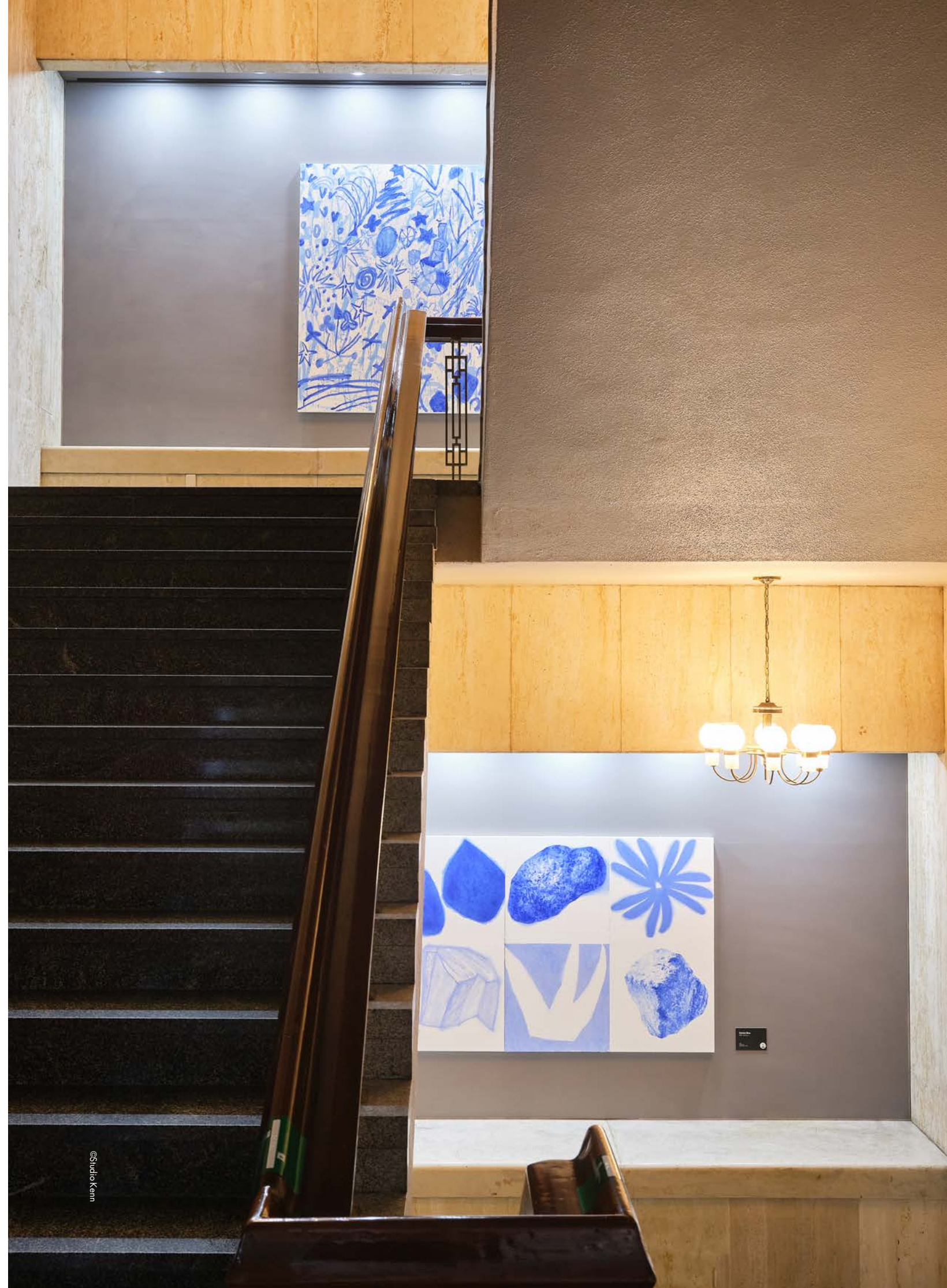
김선형의 작품은 이름이

부여되기 전의 자연을 담아내는 비정형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의 정원이다. 꽃, 풀, 새소리, 돌멩이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등장하지만, 이는 고정된 상징이 아닌 이름 없는 존재의 상태로 남아 있다.

그의 작업 방식은 노자의 '무명無名, 천지의 시작과

장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 개념과 연결된다. 인위적 제약을 벗어난 절대적 자유의 세계를 구현한 그의 작품은 사회·정치·문화적 틀을 초월한 순수한 상상력의 공간이다. 작품 속 형상들은 원근법도, 고정된 형상도 따르지 않으며, 정해진 서사 없이 감정과 심상을 따라 자유롭게 변화한다.

관객에게는 새로운 서사와 서정을 만들어갈 여지를 남기며, 인위적 가치와 제약을 넘어서는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도록 이끈다. 김선형의 '이름 없는 정원'은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의 초대이자, 예술을 통해 무한한 자유와 이상을 꿈꾸는 여정이다. 김백균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교수



©Studio Kenn



이성욱, <자연의 소리>부분, 2024, 스테인리스스틸 기변 설치, 높이 800cm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이 자리한 노들섬 동측 다목적홀 숲에는 사라져가는 자연의 소리를 설치 작업으로 담아내는 이성욱 작가의 작품 <자연의 소리>가 들어섰다. 오래전부터 환경과 생명에 관한 각기 다른 소주제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시각화하고 있는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잠자리·나비 등 자연의 생명체를 급속으로 구현하고 도시 공간 속 자연의 소리를 상기하는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곤충의 날개를 통해 잃어버린 자연,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 그 깨우침을 통해 건강한 지구 환경과 인류의 삶을 전하고 있다. 곤충의 여러디여린 날개는 거대한 자연에 대비해 여림과 강함, 하찮음과 소중함, 파괴와 보존 등 상반된 관계 속 소중함과 깨달음을 전하는 메타포다. 잠자리와 나비의 날개는 숨이고

희망이자 자연이다. 잃어버린 뒤에야 깨닫는 자연의 소중함을 은유로 표현했다. 싱그러운 은빛 날개와 탄생을 암시하는 청아하고 맑은 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명의 노래를 들려주는 듯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스테인리스스틸을 레이저 커팅 기법으로 가공해 나비의 아름다운 문양이나 얇은 잠자리 날개의 그물망 구조를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표현, 현대적이면서도 정교하고 세련된 느낌의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모빌 구조와 날개에 부착된 스팅글이 공기의 흐름에 잔잔하게 흔들릴 때마다 반짝이는 빛과 물소리, 바람 소리,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 평온함과 동시에 자연의 소리를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하고 자연의 감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함께 만드는 화음으로 이어지는 예술의 내일

한재동 세종문화회관 후원회 부회장

글. 박재림
'세종문화N'
에디터
사진. Studio Kenn

어떤 인연으로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던 제가 회사 일에만 매몰돼 지내던 2010년쯤,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 강좌인 세종르네상스SRP 과정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기 과정을 수료하며 세종문화회관은 물론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과 뜻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후원회는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세종르네상스 과정 1기를 수료한 김동건 회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도 그 여정에 가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태웅로직스를 이끌며 문화예술 후원 외에도 소외계층 아동 후원, 장학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사회 환원은 그 보답이자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소외계층 아동 후원과 장학금 기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입니다. 이밖에 플로깅 활동 같은 환경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믿

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ESG 경영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기에,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기업이 받은 도움을 사회와 조직 구성원에게 되돌려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태웅로직스에 사내 합창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웅스콰이어'는 남성 직원 6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 간 소통을 고민하던 끝에, 문화예술에서 찾은 해답이지요. 처음 합창을 접하는 직원들은 새로운 도전에 낯설고 어려워하지만, 함께 만드는 화음 속에서 점차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지난 11월에는 영산아트홀에서 첫 정기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웅스콰이어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회사 내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옥에 이렇게 멋진 극장 공간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래전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교회 성가대와 합창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SRP 과정을 수강하며 세종아카데미 소공연장에서 열린 살롱음악회를 접했고, 여건이 된다면 나만의 공연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웅스콰이어가 있으니 사내에 연주홀을 운영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성악가들을 초청해 공연을 열고 직원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또 공연이 없는 날에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부담 없는 비용으로 대관해드리며 작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웅스홀은 저희 회사에 문화·교육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더해주는 일석삼조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후원회 활동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여쭙고 싶습니다. 후원회원으로서는 주요 공연은 물론 리셉션 같은 행사에 초대받아 회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입한 연회비 제도를 통해 많은 회원이 꾸준히 후원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은퇴 후에도 꾸준히 후원하는 회원을 보며, 예술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지원은 재정적 기여를 넘어, 더 나은 예술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 후원회가 앞으로 지향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후원회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교

육과 예술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 뜻이 공감을 얻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고 후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참여만이 후원회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동행 프로젝트 '모든 누구나'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선보이는 일 역시 필수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명확히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연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차별화된 기획과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후원회가 충분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만의 독창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세종CEO합창단 창립 멤버로 활동했는데요. 무대 위에서 합창하며, 노래에 담은 진심이 관객과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주변에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잘 될지 걱정입니다만, 의미 있는 도전이 되리라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Season 25

세종시즌

연출 오하드 나하린 Ohad Naharin

2025.
3.14Fri –
3.23Sun

Decadance
오하드 나하린
데카당스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발레단




Season 25

세종시즌

예술감독·안무 윤해정
작곡 해미 클레멘세비츠 Remi Klemensiewicz, 황민양
비주얼디렉터 이석

2025.
4.24Thu –
4.27Sun

Speed
스피드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서울시무용단

